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24 October, 2008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24 October, 2008



발행인 이병훈 발행처 남양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 기업본부
편집 오경아 디자인 비파 인쇄 정광인쇄(주)

ECO

- 02 CEO 비전레터
- 04 자연오감
- 06 웰니스 칼럼
- 010 자연의 선물
- 012 이음이 전하는 자연의 맛

NET

- 016 현장스케치
- 020 다이내믹에코넷
- 026 러브스토리
- 028 성공이야기 1
- 032 성공이야기 2
- 036 나의 소중한 사람
- 038 사진 콘테스트
- 042 ECONET NEWS

WAY

- 050 청강열전
- 054 글마당1
- 058 글마당2
- 060 나의 소원
- 062 행복여행
- 068 함께해요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24 October, 2008



Publisher Bill Lee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yang Company
Editor Kyeongah Oh Design by BPA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ECO

- 02 CEO vision letter
- 04 The Sense of Nature
- 06 Wellness Column
- 010 The Gifts of Nature
- 012 Eum: Bringing the Tastes of the World to Your Table

NET

- 016 On the Scene
- 020 Dynamic econet
- 026 Love Story
- 028 Success Life 1
- 032 Success Life 2
- 036 My Precious Person
- 038 Photo Contest
- 042 ECONET News

WAY

- 050 Biography of Yunho Lee
- 054 Literary Space1
- 058 Literary Space2
- 060 We Grant You a Wish
- 062 Happy Trails
- 068 Let's Do It



“위대한 기업으로의 향해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랜만에 에코넷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10월로 들어셨습니다. 살갓을 스치는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도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완전한 가을입니다. 늘 하는 생각이지만,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올해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다. 한국 유니베라 전진대회, 중국 하이난 알로에 가공공장 준공, 한미 유니젠 통합, 미국 유니베라 컨벤션, 하이난 리조트 시공...

이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천연물 시장의 세계 1위 기업’을 향한 발걸음들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2003년부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결과입니다. 지난 6년 동안 Phase I, II 단계를 거치면서 이룩한 성과인 셈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이거나, 좌절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2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Phase III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3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기입니다.

내년부터 눈앞에 굽직한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유니베라가 호주를 시작으로 일본, 멕시코 등으로 시장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네이처텍 미국 공장이 선보일 것입니다. 유니젠은 통합효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해외농장들도 안정화되면서 원료 공급기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사업인

중국 하이난 리조트도 문을 열게 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준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바로 Phase III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Phase III 전략수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러시아에서 워크숍도 가졌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그동안 해온 일을 정리,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다소 흥분돼 있습니다. Phase III를 거치면서 얻게 될 성과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실행력을 높여 우리가 수립한 전략을 수행한다면, 에코넷은 지금과는 다른 얼굴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한 ‘웰니스 기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 왔습니다. 에코넷 구성원들의 열정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 결과 알로에 원료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연물 시장을 지나 웰니스 서비스 산업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향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달하고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들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향해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총괄사장 이병훈

Greetings to fellow

ECONETIANs

We are now at the beginning of October. The wind has become chilly, and when we look around, we can feel the advent of long-awaited autumn after sizzling summer. This reminds me that time awaits for no one.

In 2008, we have witnessed a string of important events. Univera Korea Convention, Grand opening of main plant's of Hainan Aloecorp, Consolidations of Unigen USA and Unigen Korea, Univera USA Convention and construction of Hainan resort complex... The list goes on and on.

All of these event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se events have been steps toward “the World's Leading Natural Products Company”

Looking back, these achievements are the result of our mid-and-long term strategies that we have established and pursued since 2003. For the last six years, we have been through Phase I and II and we are now well on the way. Of course, we have had our share of difficulties. There have been times we fell short of expectation. But we never despaired or gave up on our goal.

After two months, we will embark on Phase III. Three years down the road, we will be able to take off to a higher level.

Next year, we will see great events unfolding before us. Univera will expand to overseas markets starting from Australia, Japan, and then Mexico. Naturetech will build a manufacturing site in US. Unigen will demonstrate the effect of merger. Overseas farms will stabilize and function as reliable sources of raw materials. China's Hainan resort complex, our new venture, is wait-

ing for grand opening.

We have lots of tasks to do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rojects mentioned above. What is the most important is thorough preparation. As we understand from our past experiences, unprepared move can be disastrous.

Our foremost priority should be establishment of Phase III strategy. We have been working hard to successfully place Phase III strategy. We had a workshop in Russia in August 2008. Wrapping up the issues and discussions during the next two months is very important.

I am quite excited for the prospect of Phase III. The result and benefit of Phase III will be enormous. If we execute Phase III as we planned, ECONET will be totally changed.

I can clearly see the prospect of successful “wellness company.” We have been doing what we do best. The passion and unsparing devotion of Econetians were incomparable. Today, we hold rank 1 in aloe raw material market, have global standard natural product line, and continue to grow with further expansion into wellness service industry. We are at the beginning of a journey: a transition from a “good company” to a “great company.” My heart beats with the prospect of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and “Br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Now, you may understand why I am so excited. Would you like to join me in this journey? ○

Chairman & CEO *Bill Lee*



제 할 일을 다 했기에 아름다운 가을나무의 단풍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가을도 분명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때를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As tree leaves turn beautiful colors in the fall after they
fulfill their duty while green, your efforts will
flourish in abundance since you always do your best.
We will support you until you reap the fruits of your hard work.

생활습관 일기 쓰기

참 잘했어요!

오늘은 맑음

글 | 김석원 차장 | 웰니스 사업팀 | 팀에코넷 미국 홀딩스

커피 메이커에 헤이즐넛 커피를 우려내 그 부드러운 향과 맛을 음미하며 새벽의 문을 열어 본다. 커피잔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득 최근에 접한 이런저런 주변의 소식들이 생각이 났다. 특히, 건강한 삶에 대한 상념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가족과 또 내 삶에서 알게 된 가까운 지인들의 반갑지 않은 건강소식들 때문인 것 같다.

어느 순간인가, 내 나이가 몸 건강에 대해 이제는 신경을 좀더 써야만 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 때, 솔직히 찝찝하고 어색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어느 기업의 CF 문구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거라는 게 하나 둘씩 드러날 때마다 내게는 일종의 경종이 되기도 하거니와, 웬지 서글퍼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 특히 사회 경제구조를 이끌고 있는 중장년층은 언제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선 주5일제 근무, 탄력근무제 등으로 삶의 여유와 즐거움, 건강한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는 노력과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피로와 불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일상의 업무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각종 성과 평가제도와 승진제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은 건강합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예, 무병무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병에 걸리지 않아서’ 라는 것만으로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에서는 ‘미병(未病)’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미병’이란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 일 뿐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병에 걸리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말한다. 내 자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주위를 둘러보면,

‘미병’ 상태의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면서 한겨울에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만성적 피로와 변비, 불면증, 두통,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상은 동양의학에서는 미병 상태의 몸이 보내고 있는 SOS 신호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 ‘난 원래 그래왔어’ 라고 치부를 하며 가볍게 생각했다가 심각한 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친환경적 전원생활을 추구하며 정신적, 영적 요소 등을 중시하는 웰빙 라이프를 열망하는 마니아층이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현재 인류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장수는 인류의 공통된 희망이므로 행복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평균수명의 숫자를 놓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건

Keeping a Diary of

One’s Lifestyle and Eating Habits:

Clear Skies,

Excellent work

By **Greg Kim**, Manager | Wellness Department | ECONET USA Holdings

I greet the dawn with the soothing taste and fragrance of a finely-brewed cup of hazelnut coffee. Gazing at the pale steam rising slowly from the cup, I call to mind several bits of news that have reached me of late. That nagging concern about leading a healthy life remains at the forefront of these thoughts and seems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news of ill health I’ve received from both family and close friends.

From time to time, when I’m struck with the vague notion that my age now requires me to pay closer attention to my physical health, I can’t help feeling awkward and uneasy. Although a certain TV commercial suggests that “age is just a number,” I notice increasing signs that palpably remind me of my age. Such signs not only sound a warning of sorts, but also plunge me into some melancholy.

People today, especially the middle-aged and older generations who are the mainstays of our

economic structure, are always scrambling for time. Thanks to the recently-instituted five-day work week and flexible time system, most workers are turning their attention more and more to ways of bringing leisure, enjoyment, health and wellbeing to their lives. However, the vast majority of workers are still suffering from chronic fatigue and lack of sleep. This is likely the result of a general increase in the intensity of work and added mental and physical stress stemming from various evaluation and promotion systems.

In an age of ever accelerating, unlimited competition, there aren’t many who can answer the question, “Are you in good physical health?” with a definite “Yes.” This is because merely being free of disease does not equal health. In Eastern medicine, one uses the term mibyeong (未病 : literally, “not yet ill”) to differentiate real wellbeing from a mere semblance of health. Mibyeong denotes a state of “pre-disease vulnerability,” in

which one is as yet unafflicted with disease but cannot be regarded as being in good health. Looking around, I feel that there are many who readily fall into this category, including myself. Even among those who make a show of their “health”by wearing short sleeves in the middle of winter, there are more than a few who suffer from chronic fatigue, constipation, insomnia, headaches, shoulder cramps, and back pain. According to the tenets of Eastern medicine, such symptoms are “SOS” signals sent out by a body in a state of mibyeong. Unfortunately, I frequently see people dismissing these “signals” by saying, “All I need is a good night’s rest” or “I’ve always been like this,” only to have them progress into serious illnesses. This is why a steadily growing contingent of “wellbeing enthusiasts” are actively seeking out life in environmentally-friendly rural areas, with greater emphasis on spiritual and psychological elements, in order to shield themselves

나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최면을 걸어 보려 한다.
“오늘은 엄청 재수없고
짜증나는 날이었어. 피곤해” 라는
말 대신 “그래! 오늘도
운수 좋은 하루였어” 라고...
솔직히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이조차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샘솟는
힘찬 아침을 맞을 수 있다고 믿기에
노력하려 한다.
에코네시안 여러분도 부디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강상태'의 지표가 반영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항우장사라 하더라도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나 기능이 저하되는 것과 병에 걸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비록 나이로 인해 몸의 기능이 떨어졌다 해도 건강하게 사는 백살과 병으로 누워있는 백살의 경우는 다르며, 분명한 것은 아무도 병으로 누워있는 백살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병에 안걸리고 살 수 있을까? 솔직히 그 비밀의 정답은 나도 잘 모른다. 비결을 안다면 노벨상을 엄청 받았겠지만..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자면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직접 우리 몸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건강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크게 식사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볼 수 있다. 즉,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섭취, 적합한 운동, 적당한 수면, 안정된 심리상태, 일과 스트레스의 균형적 관리 등과 같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습관과 식습관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과 식습관을 길들이면 병에 걸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생명, 즉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해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세계적 위장 권위자이자 전문의인 신야 히로미 박사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사의 치료만으로는 결코 환자를 건강하게 할 수 없다. 매일 규칙적인 식습관과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몸을 길들여야 건강이 보인다”

직장에선 훌륭한 상사이자 인생의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해주시는 선배의 얼마 전 조언이 떠오른다.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계획표를 만들 때 단순히 보이는 일상계획이지만 그 계획처럼 실천을 했고 하루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일기를 매일 쓰려고 노력했다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단순히 보이는 초등학교생의 계획표처럼 일상건강관리 계획표를 만들어 생활 및 식습관 관리를 실천하라고 조언을 주신다. 그리고 일상건강관리 기록을 일기처럼 적어보라고 하신다. 추가로 호환마마 보다 무섭다는 ‘백설당, 백미, 미원과 같은 화학조미료’이 세가지 종류의 백백음식과 트랜스 지방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신다.

우리 몸은 인생의 집대성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미련할 정도로 정직해서 그 살아온 모습이 좋은 나쁜 것이든 고스란히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령 내시경으로 보지 않아도 즐거운 생각과 함께 규칙적이고 올바른 식사법을 한 사람의 위장은 곱게 화장을 한 여인처럼 아름답고 건강할 것이다.

하지만 피곤 할 만치 자신의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고 회식이나 모임을 거절한다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친구와 동료가 없는 인생이 행복할까? 건강을 구실로 힘든 일을 거절한다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성취감 없는 인생이 행복할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나 ‘과하지 않을 것’, 즉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우리의 뇌와 몸이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최면을 걸어 보려 한다. “오늘은 엄청 재수없고 짜증나는 날이었어. 피곤해” 라는 말 대신 “그래! 오늘도 운수 좋은 하루였어.” 라고.. 솔직히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이조차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샘솟는 힘찬 아침을 맞을 수 있다고 믿기에 노력하려 한다. 에코네시안 여러분도 부디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또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로 ‘올바른 식생활’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즐기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성공하시길! 나 역시 오늘도 최악의 생활습관인 ‘담배’와 전쟁을 해야 할 것 같다. 여러분도 ‘오늘 밤의 소주, 삼겹살’ 보다 ‘10년 후의 건강’을 선택하시길 바란다.

From time to time, when I’m struck with the vague notion that my age now requires me to pay closer attention to my physical health, I can’t help feeling awkward and uneasy. Although a certain TV commercial suggests that “age is just a number,” I notice increasing signs that palpably remind me of my age. Such signs not only sound a warning of sorts, but also plunge me into some melancholy.

from the dangers of ill-health.

Today, humankind’s average lifespan is lengthening continually. This is a happy development, since long life is the cherished hope of everyone around the world. But the average lifespan should not be evaluated in numerical terms only, because mere numbers do not reflect the state of one’s health. As one ages, even the sturdiest of people experiences a decline in bodily function. Still,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declining functionality and actual sickness. Even if the body does not retain full functionality, a hundred-year-old who lives a healthy life is not the same as one who is confined to bed with illness. What is patently clear is that no one wants to reach the age of one hundred while suffering on a sickbed.

Then how can we lead a healthy life free of disease? Frankly, I don’t have the answer to that question, though it would certainly be worthy of a

Nobel Prize. If I were to take a guess, I would say, “Ask your body how it has been living up to this point.” The difference between a healthy and an unhealthy life can largely be seen in one’s lifestyle and eating habits. In other words, such everyday habits and activities as regular meals, sufficient sleep, adequate exercise, peace of mind, and the balanced management of work and stress contribute centrally to a healthy life. Unfortunately, although most people are well aware that cultivating good living and eating habits allows us to fulfill our natural lifespans, they are unable to put this knowledge into practice and thus end up damaging their health.

In light of this regrettable fact, we should pay close heed to the words of Dr. Shinya Hiromi, a physician and world-renowned specialist in gastrointestinal medicine: “A patient cannot be restored to full health by a doctor’s treatment alone. Health can only come within our reach if we condition our bodies through a wholesome lifestyle and regular eating habits.”

The recent advice of a good friend and co-worker, who often gives me valuable wisdom about life, also springs to mind. When he was in elementary school, my friend recalled, he would draft a schedule of daily activities every vacation. Although the schedule was simple, he carried it out diligently and strove to take stock of each day by keeping a diary. He recommended that I make a similar daily schedule for maintaining my health and use it to practice the habit of wholesome eating and living. He added that I should try to record the day’s health maintenance efforts in a journal. Furthermore, he emphasized repeatedly the importance of avoiding trans fat and the three “white” foods of white sugar, white rice, and white artificial seasonings.

I believe that one’s body is a compendium of his or her life. Our bodies are honest to a fault: they transparently manifest the effects of the way

we live, whether good or bad. For instance, even without verifying with an endoscope, the intestines of a person who thinks happy thoughts and maintains regular and healthy eating habits are sure to be as healthy and shapely as a woman whose beauty does not require makeup.

However, I don’t believe that obsessing excessively about one’s health can be good, either. If we steered clear of dinner outings and get-togethers in order to avoid eating unhealthy foods, we’d end up living a physically fit but friendless, companionless life. How could this make us happy? Likewise, if we eschewed work that requires exertion in order to keep our health, we’d never experience a sense of accomplishment. How could this make us happy? The important thing, I’m certain, is to “avoid extremes”?that is, to maintain a good balance.

Let us not forget that our brains and bodies are listening to what we say as we go about our daily routines. Every night before bed, I try a little bit of self-hypnosis. Rather than saying, “What a frustrating and unpleasant day it’s been! I’m exhausted!” I say, “Alright! Today was a good day!” To be honest, this isn’t always easy to do, especially if something particularly taxing has happened during the day. But I still try my best, because I believe that this simple act of reorientation will lead to a vigorous, energetic morning. I earnestly hope that my fellow ECONETians will make their lives healthy and happy by inspiring themselves with positive words. I also urge them to live long and healthy lives by consistently practicing good eating and living habits. Today, I myself will be continuing my battle against my worst habit, smoking. Instead of choosing “drinks and meat tonight,” why not do yourself a favor by choosing “continued health in 10 years’ time”? ●

자연의 선물

황금

글 | 장미라 | 총무, 인사팀 | 유니젠



러시아 크라스키노 농장 직원이 수확한 황금을 들어 보이고 있다.
A worker at Kraskino plantation, Russia holds up a Scutellaria plant.

황금을 아시나요? 유니젠 러시아의 크라스키노 농장에서 영하30~40도의 저울을 견디고 강한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는 식물이 있다. 황금이다. 정말 ‘금(Gold)’가 루를 만지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섯노란 색의 뿌리를 가진 이 식물은 대체 무엇일까? 황금은 꿀풀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우리 조상들은 ‘속 싹은 풀’로 부르기도 했다. 그 이유는 싹이 나서 4년이 되면 중심부가 썩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황금은 삼국시대 이후 민간요법으로 열을 가라 앉히는데 널리 사용됐다. 꽃은 보라색으로 7월에서 8월에 피며, 한쪽으로 치우쳐 달린다.

황금은 어디에 좋을까? 황금은 많은 효능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특히나 염증이나 소염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입안의 염증은 황금을 진하게 달여 입 속에 머금고 천천히 마시면 효과가 뛰어나다. 또 장티푸스 초기에 쓰면 열을 내리고 세균을 제거한다. 여러 형태의 간염에 나타나는 황달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몸이 부은 데도 효과가 좋다. 각종 부종의 초기에 황금을 진하게 끓여 환부에 바르면 염증과 부기가 없어지고 화농을 방지한다. 고혈압인 사람은 황금을 기본으로 다른 약재들(석결명, 백결려 등)을 배합하면 강압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또 월경과다 및 주기 이상 등의 부인과 질환에도 좋다. 특히 황금은 피부관리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열독이 올라 생긴 아토피 피부에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에 스며있던 유해성분을 제거하고, 피부를 재생시켜 준다. 유해산소로 인한 피부노화나 피부 트러블, 그리고 흉터예방에 효과가 있다.

황금 성분연구는 매우 오래 전부터 시작

됐다. 동의보감 저자 허준 선생이 선조대왕과 광해군시절 괴질인 이질이 유행하자 임금에게 황금을 다려 먹을 것을 권했다. 19세기말 일본인들은 괴질이 유행하자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 효능이 있는 폴라보노이드 성분을 분리해 복용하기도 했다.

황금은 현대에 와서 더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 전남 강진군에서는 항생제 대신 황금을 닭에게 먹이는 한방 기능성 양계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길러진 닭은 기름기가 적고 육질이 부드러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 업체에서는 황금을 이용한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황금을 이용해 항균 및 꽃가루, 세균, 박테리아 등을 제거하는 필터를 개발해 공기청정기에 적용한 사례다.

유니젠에서는 황금을 이용해 ‘유니베스틴’을 개발했다. 유니베스틴은 현재 미국에서 관절기능 개선 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니베스틴-K’라는 이름으로 유니베라에서 판매중인 ‘리제니케어-K’의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리제니케어-K는 동물 및 임상실험을 거쳐 관절기능개선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황금은 35년 이상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크라스키노 대지 위에서 기적처럼 탄생했다. 그 동안 수십 년에 걸친 에코넷의 영농경험을 토대로 여러 차례 시험재배를 거쳐 ‘황금밭’이 선보인 것이다. 유니젠은 이 황금밭을 통해 안정된 원료 수급은 물론 뛰어난 품질의 황금을 제공 받고 있다. 고객에서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유니젠 러시아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땀이 뻗어 황금밭 덕이라 할 수 있다. ●

Nature's Gift of

Scutellaria

By **Mi-ra Jang** | General Affairs & Human Resources | Unigen

Have you ever heard of the name “Scutellaria baicalensis”? It refers to a singular plant, also known as “skullcap,” that can survive extreme temperatures of -30 to -40 degrees Celsius and sprouts with amazing vitality even after the frigid winters of Kraskino, Russia. Just what is this mysterious plant, whose yellow roots look as if they’ve been dipped in scutellaria? Scutellaria baicalensis is a species of flowering plant in the Lamiaceae family. Its flowers, which are purple and hang toward one side, bloom in the months of July and August. In the old days, Koreans used to call it “rotten heart,” because they saw that the inner part of the plant began to rot after four years. It was widely used as a folk remedy for fever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reafter.

What, then, are the uses of this herbal Scutellaria? Scutellaria baicalensis has various efficacies, but it is known to be especially effective against infections. In fact, boiling Scutellaria and slowly drinking the brew is surprisingly effective in curing sores inside the mouth. Using Scutellaria during the early stages of typhoid lowers fevers and kills germs. It is also good for curing jaundice that results from various types of hepatitis.

In addition, Scutellaria baicalensis is effective in bringing down swelling. Applying a concentrated brew of Scutellaria to any edema in its early stages eliminates infection and swelling while preventing festering. For hypertension patients, using Scutellaria as a base for mixing other medicinal ingredients such as Cassia occidentalis makes their pressure-lowering effects begin working faster and last longer. Another benefit Scutellaria provides is in the area of women’s health: it helps normalize the menstrual cycle and volume. It is also extraordinarily effective in maintaining skin health. Using it as a mask over atopic areas eliminates toxicity and renews the skin. Not only that, but its antioxidant properties helps prevent aging, irritation, and scarring.



7~8월이면 크라스키노 농장은 보라색 꽃을 피운 황금으로 장관을 이룬다.
From July to August, full-bloomed violet flowers of Scutellaria makes a beautiful scenery in Kraskino plantation.

The study of Scutellaria baicalensis has a centuries-long history. Heo Jun, the famed author of Dongeuibogam (1610), a famous book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recommended brewed Scutellaria to the King as a preventive against dysenter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a dysentery epidemic broke out in Japan, one known cure was to separate and ingest the flavonoid component of Scutellaria, which has anti-diarrheal properties.

Scutellaria is in far wider use today. A new poultry farming project that recently kicked off in Kangjin, Jeollanam-do Province, produces medicinal chicken by feeding them Scutellaria instead of antibiotics. Chicken grown by this method is leaner and tenderer, which promises to be greatly popular with consumers. Another company has unveiled an air purifier that uses Scutellaria baicalensis. The special filter utilizes the plant’s antimicrobial properties to remove airborne germs, pollen, and bacteria.

At Unigen, our research into Scutellaria baicalensis has produced Uninvestin. Uninvestin is currently being used in the US as a based ingredient in joint supplements. In Korea, it serves as the key ingredient in Regenicare-K, a popular Univera product whose effectiveness in improving joint function has been scientifically proven. Scutellaria baicalensis came to life like a scutellariaen miracle on the fields of Kraskino, a formerly arid land that had lost its agricultural function more than 35 years ago. The rebirth of this herbal Scutellaria was made possible by ECONET’s decades-long experience in agricultural cultivation and its perseverance through repeated experiments and field tests. Our “field of Scutellaria” guarantees Unigen not only a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but their high quality as well. In the end, the matchless effort and dedication that Unigen Russia’s employees have poured into the Kraskino Farm is what makes it possible for Univera to continue bringing superior products to our customers. ●

이음이 전하는

자연의 맛

글 | 박 경 진 대표 | 이음

자연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의 '이음'
이음 레스토랑에서는 자연이 낳은 풍성한 식 재료를 이용, 건강한 조리법으로 맛깔스럽고 담백한 음식을 만
들어 내고 있다. 그릇 역시 사람의 손으로 빚고 칠하고, 여러 번 가마에 구워 탄생된 도자기를 사용해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자연의 소재에 담아낸다.

Eum: Bringing the

Tastes of Nature to Your Table

By **Kyungjin Park** | Eum F&B

True to our name, which means “connection” in Korean, Eum’s culinary philosophy is to connect people with nature. We take the freshest ingredients from nature’s bounty and turn them into light yet delectable dishes using the healthiest recipes. Even the bowls and plates we use are formed and painted by hand, then fired several times in the kiln, so that both our food and their containers come as close to nature as possible.

이번 호에서는 이탈리아 식(食)으로 자연을 느껴보고자 한다.

양념과 향신료가 적고, 재료 그 자체로 즐기는 요리가 이탈리아식의 큰 특징이다. 말 그대로 자연을 요리하는 것이다. Filetto al pepe verde con le verdure (페퍼콘 소스의 안심구이와 야채)와 Ravioli di gamberi in salsa di vongole(새우로 속을 채운 라비올리와 조개 소스)를 소개한다.

페퍼콘 소스의 안심구이와 야채

주재료	소스
소안심(뉴질랜드산) 220g	생크림 10g
감자 30g	파프리카 5g
애호박 10g	페퍼콘 3g
파프리카 5g	브랜드 1g
실파 5g	로즈마리 1g
	소금 1g
	후추 1g
	마늘 1g

조리과정

1. 감자와 호박을 물에 삶아 준비한다
2. 파프리카를 불에 태워 찬물에 탄부분을 씻어낸다.
3. 실파의 끝부분을 물에 삶아 준비한다.
4. 준비된 1,2,3을 접시에 담는다.
5. 소안심을 불에 잘 구워, 가니쉬(준비해둔 야채)위에 올린다.
6. 준비된 소스를 위에 뿌리고 로즈마리로 장식한다.

소스 만들기

크림을 팬에 넣고 페퍼콘과 브랜드를 첨가 한 후 미리 갈아 놓은 파프리카를 넣어 조리한다.

뉴질랜드산 안심을 이용한 페퍼콘 소스의 안심구이와 야채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에너지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또 비타민 A, 엽산 나이아신, 비타민K 합성을 도와주는 기능의 비타민B2 와 비타민 B12, 아연이 함유된 영양만점의 요리이다. 감자와 애호박을 넣어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 여기에 파프리카를 더해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A, 피부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C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다. 특히 파프리카는 오렌지의 약 2.5~3배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

새우로 속을 채운 라비올리와 조개 소스

주재료	소스
밀가루(강력분) 80g	모시조개 30g
계란 10g	토마토 10g
새우 30g	마늘 3g
양파 5g	올리브오일 5g
마늘 3g	파슬리 3g
빵가루 5g	소금 1g
올리브오일 2g	후추 1g
파슬리 2g	
소금 1g	
후추 1g	

조리과정

1. 올리브 오일에 양파와 마늘을 넣고 잘 볶는다.
2.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잘 볶아둔다.
3. 1과 2를 불에 넣고 빵가루와 파슬리, 소금, 후추를 넣어 속을 만든다.
4. 준비된 넓은 파스타에 속을 채운다.
5. 후라이팬에 오일과 마늘을 볶은 후 조개를 넣고 조개가 열릴 때까지 조리한다.
6. 끓는 물에 익힌 라비올리를 5에 넣어 조리한다.
7. 라이스 토마토와 파슬리를 첨가한다.

Ravioli di gamberi in salsa di vongole (새우로 속을 채운 라비올리와 조개 소스)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지방이 적은 새우가 주재료다. 새우에는 지방의 흡수를 억제시키는 키토산과 베타카로틴과 유사한 물질로 항암작용을 하는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새우의 붉은 색을 내는 색소성분,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양은 건강인이 섭취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생체이용률이 높은 철이 함유된 모시조개를 이용하여 빈혈예방과 엽산 결핍 예방에도 좋다. ●

Filetto al pepe verde con le verdure (Peppercorn fillet with vegetable)

Main ingredients	Sauce
Beef tenderloin (New Zealand) 220g	Fresh cream 10g
Potatoes 30g	Ground paprika 5g
Zucchini 10g	Peppercorns 3g
Paprika 5g	Brandy 1g
Green onion (small) 5g	Rosemary 1g
	Salt 1g
	Pepper 1g
	Garlic 3g

Instructions

1. Boil the potatoes and zucchini in water. Set aside.
2. Roast the paprika over a flame, then wash off the charred skin with water.
3. Boil the ends of the green onions in water and set aside.
4. On a plate, spread the prepared ingredients from 1, 2, and 3.
5. Grill the beef tenderloin, then place on the bed of vegetables prepared above.
6. Pour the sauce (see below) over the beef and vegetables, and garnish with rosemary

Making the Sauce

Pour the fresh cream into a saucepan. Add the peppercorns, brandy, and ground paprika. Cook over heat.

This tenderloin steak with peppercorn sauce, made using beef imported from New Zealand, is rich in essential amino acids and helps boost the body’s metabolism. It also contains a wide variety of nutrients including Vitamin A, folic acid, niacin, Vitamin B2 and Vitamin B12 (which assist in the production of Vitamin K), and Zinc. The potatoes and zucchini help digestion, thus offsetting the heaviness of meat. The use of paprika adds Vitamin A, effective against skin aging, and Vitamin C, essential for synthesizing the skin’s collagen, to an already healthful dish. In fact, paprika contains roughly 2.5 to 3 times the amount of Vitamin C contained in an orange.

Ravioli di gamberi in salsa di vongole (Scampi ravioli in shellfish sauce)

Main ingredients	Sauce
Flour (strong) 80g	Clams 30g
Eggs 10g	Tomatoes 10g
Shrimp 30g	Garlic 3g
Onion 5g	Olive oil 5g
Garlic 3g	Parsley 2g
Bread crumbs 5g	Salt 1g
Olive oil 2g	Pepper 1g
Parsley 3g	
Salt 1g	
Pepper 1g	

Instructions

1. Saut the onion and garlic in olive oil, and set aside.
2. Saut the shrimp in olive oil, and set aside.
3. Make the filling for the ravioli by mixing the ingredients from 1 and 2 in a bowl with the bread crumb, parsley, salt and pepper.
4. Insert the filling in the prepared pasta.
5. Saut some garlic in olive oil. Add the clams and cook until their shells open.
6. Cook the raviolis in boiling water, then add to the clam sauce above. Cook until done.
7. Add some sliced tomatoes and parsley as garnish.

The main ingredient in Ravioli di gamberi in salsa di vongole (scampi ravioli in shellfish sauce) is shrimp, which is rich in protein but low in fat content. Shrimp contains chitosan, which inhibits fat absorption, and astaxanthin, an anti-cancer agent similar to beta-carotene that produces a reddish color. Although shrimp contains some cholesterol, the amount is not enough to be harmful to a healthy person. The addition of clams, which contains iron in an easily absorbed form, makes this dish effective in preventing anemia and folic acid deficiency as well. ●

In this issue of ECONET Way, Eum introduces nature’s tastes Italian-style. Italian cuisine is distinguished by its sparing use of seasonings and emphasis on the unadulterated flavor of natural ingredients. In other words, Italian cuisine is all about cooking from nature. Below are the recipes for “Filetto al pepe verde con le verdure (peppercorn fillet with vegetable)” and “Ravioli di gamberi in salsa di vongole (Scampi ravioli in shellfish sauce).”



북한과 중국 국경에 인접한 러시아 크라스키노 농장 안 숙소(옐로우 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 왼쪽 방향이 두만강, 오른쪽이 중국 훈춘으로 연결된다.

A view from the lodge (Yellow House) in Kraskino farms located near the border between China & North Korea. In the picture, Tuman river is on the left and a road to Hunchun city, China, is on the right.

2008 러시아 캠핑 워크숍 르뽀 August 13-17, 2008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글 | 박경철 | 기획인사 팀장 | 에코넷 한국 홀딩스

“가보면 알겠지만, 광활한 대지에 끝없이 펼쳐진 우리 농장을 보면 감동할 걸요.”

지난 8월 13일, 에코넷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일정이 시작됐다. 러시아를 가기 전부터 우리 농장에 대한 자람을 들어왔던 터라 기대감도 그만큼 컸다. 더욱이 그 농장에서 전략수립을 위한 토론회도 하게 됐으니.

러시아 크라스키노 농장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등 세 나라의 국경이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크라스키노 농장을 가기 위해서는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4시간 가량 내려가야 한다.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APEC회의 때문인지 대부분의 도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비포장 길이 대부분이어서 앞서 달리는 차들이 일으키는 먼지로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길 양쪽으로 펼쳐진 경관은 나무들이 연출하는 녹색과 푸른색의 물결로 시원했다.

이날 저녁 농장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은 사람은 이병훈 총괄사장 과 러시아농장 직원들이었다. 푸른 하늘과 넓게 펼쳐진 초원을 가진

Doing Valuable Work Together is a Joy beyond Compare

[A Report on the 2008 Russia Camping Workshop August 13-17, 2008](#)

By **Kacy Park** | Team Manager Planning & HRMT | ECONET Korea Holdings

“You’ll be blown away when you see our farm stretching endlessly over the vast fields of Kraskino.”

On August 13, the four-day itinerary for the workshop on ECONET’s mid- to long-term strategies came to a start. Since I’d already heard great things about the farm in Kraskino, I was greatly excited at the prospect of visiting it, and doubly so knowing that we’ll be drafting new blueprints for our company’s future there.

The Kraskino Farm sits at the intersection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To get there, one has to travel south for about four hours from the Vladivostok International Airport by car. Perhaps in preparation for the Vladivostok APEC Summit in 2012, many of the roads were under construction. Most of them were still unpaved and the billowing dust stirred up by the cars in front made it almost impossible for us to see ahead. But the wooded vistas of blue and green flowing past us on either side made us feel refreshed.

Upon arrival, we were greeted by Chairman Bill Lee and the Kraskino staff. The farm was a stunningly beautiful sight of sweeping green fields topped by blue skies. We had gotten there after 9

p.m. and the moon was already up over the eastern horizon, but an incandescent sunset still lingered in the west. It seemed to presage the fact that our four-day workshop would ignore the boundary between night and day.

Morning at the farm was accompanied by the cold and damp. But we were warm and cozy in our sleeping bags inside our tents, thanks to the wood panels laid down under the tent floor. Needless to say, we felt grateful to whoever it was that came up with the idea (we later learned that it was none other than Chairman Lee himself). Also helping to drive out the chill of daybreak was a small but vigorous campfire that burned among the tents punctuating the broad fields.

Many people were moving busily about, getting things ready for the workshop. Our breakfast was prepared by local Russian women of Korean descent, and so familiar to our palate. In fact, everyone remarked that the food was “even more delicious and refined” than what they were used to eating in Korea. The theme of the day was ECONET’s “strategy management.” vice president Mana Kim opened the proceedings with a presen-

농장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도착 시간이 9시가 넘어 동쪽 하늘엔 진작에 달이 떠올랐지만, 아직도 서쪽 하늘은 붉은 석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3박 4일의 워크숍이 낮과 밤의 경계를 넘나들 것을 암시라도 하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농장의 새벽은 서늘한 대지의 습기와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텐트 속 침낭은 무척 따뜻했다. 텐트 바닥에 나무판자를 깔았기 때문이었다. 나무판자를 먼저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치는 아이디어를 낸 농장의 직원이 누구인지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나중에 물어 보니 그 아이디어는 이병훈 사장의 것이라다). 초원 위에 세워진 텐트들 가운데 작지만 험차게 불씨를 피워내는 모닥불이 새벽을 조금씩 몰아냈다.

워크숍 진행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고려인 아주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는 아침식사는 전혀 낯설지가 않다. 모두들 “한국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정갈하고 맛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오늘의 행사의 주제는 에코넷의 ‘전략경영’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에코넷 경영전략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기업본부의 김교만 상무가 발표를 맡았다. BSC, 계열사간 협력, 인재육성, 에코넷 문화, 리더십 등 굵직한 사안들의 문제점과 원인 등을 발표했다. 이어 각 사안별 해결방안에 대해 계열사별 토론이 이어졌다.

당초 2시간 정도를 예상했는데, 워낙 열기가 뜨거워 2~3시간씩 추가 토론을 벌여야 했다. 저녁 종합토론을 앞두고 2시간 정도 농장 체험 시간이 이어졌다. 러시아 농장 전체 규모는 650만평이다. 그냥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족히 2,3일은 걸린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제2농장을 둘러 보기로 했다. 가는 도중 농장 전면에 있는 ‘안중근의사 단지동맹비’를 들었다. 이 땅이 지금은 비록 러시아의 국경에 속해 있으나,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2농장은 바로 이 안중근의사 단지동맹비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진 황금농장이 눈에 확 들어 왔다. 말 그대로 황금의 밭이다. 러시아 농장 직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저녁행사인 종합토론은 그야말로 ‘열기’ 그 자체였다. 각 계열사별로 진행했던 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하는 자리였다.

워크숍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모기들의 극성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다. 급기야는 야외 토론장의 모든 불을 끄고 빔프로젝터만을 켜 상태에서 토론을 해야 했다. 8시부터 시작된 토론은 정확히 새벽 1시에 마무리 됐다.

초원의 아침은 역시 상쾌했다. 모두의 눈에 간밤의 피로가 묻어났다. 하지만 차가운 지하수로 세수를 하고, 가슴 가득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은 새롭게 시작됐다.

워크숍 셋째 날인 15일. 이날은 ‘계열사별 Phase III 전략’을 토론하는 날이다. 유니베라를 시작으로 네이처텍, 유니젠, 알로콧 차이나, 유니젠 러시아, 기업본부 순으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 역시 저녁 7시까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전략수립과 관련된 토의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날 저녁에는 단합대회가 준비됐다. 유니베라 김정식 교육본부장은 재치 넘치는 사회로 이틀 간 숨차게 달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냈다.

서로 간의 웃음과 이해로 밤 늦도록 꽃을 피웠다. 일치된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료들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된 날이었다. 행사를 마무리 하는 16일은 다들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틀 간 밤늦도록 진행된 행사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다.

오전에는 먼저 기업본부 CTO 조태형 사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1. 워크숍 참가자들이 황금농장에서 잡초를 뽑고 있다.
2. 이병훈 총괄사장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3. CEO들이 사진촬영을 위해 황금농장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4. 뜨거운 열기 속에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경영’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 홀딩의 윤경수 부사장이 ‘실행에 집중하라’라는 주제가 이어졌다. 특히 “실행 없는 계획은 그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모두들 공감했다.

행사의 대단원은 이병훈 사장의 총평으로 마무리 됐다. 이 사장은 행사기간 내내 손에서 놓지 않았던 조그만 수첩을 펼쳤다. 이 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회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에서 개최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파죽지세로 성장해오던 상황이 주춤해진 데 따른 말로 들렸다.

이 사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받아 적어보니 답이 나와 버렸다”며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결론을 실행에 옮긴다면 앞으로 3년간 정말 보람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장은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며 “우리의 과제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

tation on the key challenges faced by ECONET’s strategy management, covering such broad issues as collaboration among subsidiaries, the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ECONET’s corporate culture, and problems of leadership. It was followed by a discussion session, during which the workshop participants formed groups by company affiliation and talked about the possible solutions for each issue. Although the initial plan was for two hours, the intensity of the discussion led to an additional two to three hours of conversation.

A comprehensive debate was scheduled for the evening, but before that, we were given two hours to experience the farm itself. Of course, since the entire facility stretched over some 6.5 million pyong (approx. 2150 hectares), it would have taken us two to three days just to look around. As a compromise, we restricted our tour to the No. 2 Farm. Along the way, we stopped by the monument memorializing the late freedom

fighter Ahn Junggeun’s patriotic pact, located toward the front of the farm. Although the site currently lies within Russia’s borders, I could feel our nation’s history seeped deep into the soil. The No. 2 Farm directly faces this monument. Our first glimpse of it was a seemingly endless expanse that stretched farther than the eye could see. It was, literally, a field of gold. The rows upon rows of *Scutellaria baicalensis* (a.k.a. “Gold”) seemed clearly etched with the sweat of the farm’s hard-working employees.

The evening’s debate was nothing less than “heated.” Each subsidiary presented the results of their group discussion, then participated in a general discussion about the contents of the presentations. With each passing hour, the debate became increasingly intense, as did the onslaught from the ubiquitous mosquitoes that would plague us throughout the workshop. In the end, we had to douse all the lights with the sole exception of the beam from the projector. The discussion, which began at 8 p.m., finally came to an end at the stroke of 1 a.m. Morning on the plains was brisk and refreshing. Everyone’s eyes were heavy with the fatigue of the preceding night, but we began the new day energetically by washing with ice-cold water drawn from the ground and breathing deeply of the crisp morning air. The third day of the workshop, August 15, was devoted to a discussion of Phase III strategies for each subsidiary. Univera took the floor first, followed by NatureTech, Unigen, Aloecorp China, Unigen Russia, and our Corporate Headquarters. Each subsidiary presented their plans for the next three years, and the conversation was carried on in a serious atmosphere until 7 p.m. Its end marked the end of all official discussions regarding ECONET’s strategies. That night, a party was held for everyone who took part in the workshop. The head of Univera’s Education & Training Department, Gyeongsik Kim, did his part

as a witty and entertaining master of ceremonies, bringing everyone together in fun and merriment after our exertions of the past two days. The laughter and heartfelt camaraderie lasted deep into the night. Each of us found ourselves becoming one with our colleagues in both body and spirit, as we all marched together toward a common goal.

On the final day, exhaustion was clearly written on everyone’s faces; it was inevitable after all the late nights we’d had. In the morning, CTO of Corporate Headquarters Taehyeong Jo presented on “environmental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any’s social accountability. Then, Vice President Gyeongsu Yun of our US holding company (Univera Holdings in Then, Vice President Gyeongsu Yun of ECONET Holdings in company) gave a talk on the topic of “Focusing on Action.” His conclusion that “no plan, however magnificent, can have meaning if it does not lead to action” had everyone nodding in agreement.

The event’s grand finale was a general review by Chairman Bill Lee. When he took the podium, he opened a small notebook that had been constantly in his hand throughout the workshop. He began by observing, “This year’s workshop was held at a time when our company stood at an important crossroads.” The remark seemed to be in reference to the recent halt in the vigorous growth our company had enjoyed thus far. “But looking over my notes of all the diagnoses and suggestions offered during the workshop,” he continued, “I realize that we already have all the answers we need to turn things around.”

“If we put into practice everything we talked about here, we’ll be able to achieve something really special over the next three years,” he said. “Doing valuable work together is a joy beyond compare. Let us unite in our efforts and achieve the goals we set for ourselves.” ●

새로운 성장동력 하이난에서 찾는다

글 | 최진영 | 전략기획팀장 | 유니베라 한국

역사적 순간, 중국 하이난 알로에 가공공장 준공식에 가다

2008년 4월 23일, 나는 에코넷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서 있었다. 그날 중국 하이난 알로콥 차이나 광장에는 이병훈 총괄사장을 비롯하여 에코넷의 주요 임원, 중국 해남성의 부성장, 만녕시 서기 및 시장, 유니베라 미국에서 오신 필드 자문위원(Field Leadership Consultant), 유니베라 한국의 영업국장 120명, 한국과 중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단 등 세계 각지에서 온 내외贵宾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모두들 알로콥 차이나의 알로에 가공 공장 준공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것이다.

중국 최남단의 하이난은 멕시코 농장과 같은 위도상에 있어 알로에를 키우기 좋은 기후와 최적의 토양 조건을 갖춘 곳이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시장을 공략하기에 유리한 위치이기도 하다. 또한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휴양지로서, 관광객을 유치해 회사의 인지도를 쌓기에도 유리한 장소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검토하고 2000년 10월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 총 130만평의 부지에 대단위 알로에 농장을 건설하고 2008년 '알로콥 차이나 공장'을 열게 된 것이다.

알로에 세계 시장 50% 장악, 알로에 세계 시장 지도가 바뀐다

2008년은 1998년 미국 텍사스 힐탑가든을 시작으로 해외농장을 경영한지 꼭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병훈 총괄사장의 해외농장 경영은 선대 이연호 회장과 함께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애그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 오래 전부터 해외농장의 중요성을 갈파한 것이다.

원료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체제로는 원료의 품질과 가격변동에 대응하기 어렵고,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는 인간과 친환경 중심의 에코넷 정신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해외농장 20주년을 맞는 바로 올해, 중국 하이난 알로콥 공장 개장으로 바야흐로 에코넷의 세계 알로에 벨트 밀그림이 완성된 것이다.

현재 264만㎡(80만 평) 규모의 미국 '텍사스 힐탑가든 농장'과 알로에 단일 농장규모로 세계 최대인 615만㎡(186만 평)의 멕시코 '탐피코 농장'에서는 연간 5만 6천 톤의 알로에를 생산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알로에 원료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40여 개국 700여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Finding a New Growth

Engine in Hainan

By **Jinyeong Choi** | Team Manager | Strategy & Planning | Univera Korea

A Historical Moment: At the Opening of the Aloe Processing Plant in Hainan, China

On April 23, 2008, I was a witness to a singular moment in the history of ECONET.

On that day, at the plaza of Aloecorp China in Hainan, were assembled a large gathering of VIPs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Chairman Bill Lee, ECONET's topmost executives, the 120 heads of Univera Korea's sales offic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major media outlets in Korea and China. They were there to celebrate the opening of Aloecorp China's aloe processing plant.

Hainan, China's southernmost province, is situated on the same longitude as Aloecorp's Mexico farm, thus offering an ideal combination of climate and soil conditions for growing aloe. Its location also makes it advantageous for targeting new markets in Southeast Asia and Oceania. A tourist destination attracting roughly 10 million people a year, Hainan offers the unique benefit of allowing Aloecorp to raise its corporate profile among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Based on such favorable conditions, Aloecorp founded its Chinese

headquarters there in October 2000 and constructed a large-scale aloe farm covering some 460 hectares of land. Then, in April of 2008, it finally opened the doors of the Aloecorp China Plant.

Redrawing the Map of the Worldwide Aloe Industry: Nearing a 50% Market Share

The year 2008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our overseas farming enterprise, which began in 1998 with the establishment of Hilltop Gardens in Texas, USA. But Chairman Bill Lee's experience in overseas farm management dates back even further to the days when he worked alongside his father, the late Chairman Yunho Lee. He had foreseen the importance of engaging directly in overseas cultivation long before agflation emerged as a social issue in Korea.

Indeed, Chairman Bill Lee recognized early on that relying solely on imported raw materials seriously undermined a company's ability to cope with fluctuations in quality and price. He also knew that such dependence on overseas suppliers would make it difficult to uphold ECONET's pro-human, pro-environ-

중국 최남단의 하이난은 멕시코 농장과 같은 위도상에 있어 알로에를 키우기 좋은 기후와 최적의 토양 조건을 갖춘 곳이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시장을 공략하기에 유리한 위치이기도 하다

알로에 원료는 약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중국 하이난 농장이 문을 열면서 아시아권,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배, 생산, 연구, 판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에코넷 시스템을 통해, 알로에 공급 50% 목표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중국 하이난 농장, 제 4세대 알로에 (Q-matrix 공법) 성공

알로에 원료의 1차 가공 과정도 세월이 변화하면서 많은 진화를 거듭했다. 중국 하이난 알로에 공장은 큐-매트릭스(Q-MATRIX) 공법이라는 새로운 설비와 공정법으로 개선돼 ‘4세대 알로에’를 생산하게 된다.

1세대 알로에는 알로에 생초에서 즙을 짜는 수준이었다. 2세대 알로에는 1세대의 문제점인 안전성과 위생 면을 크게 보완한 TTS공법을 통해 생산된 것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3세대 알로에는 PAD 시스템을 통해 생산, 알로에 생초보다 3배 효과가 좋은 액티브 알로에를 말한다.

중국 하이난에서 생산하는 ‘4세대 알로에’는 다양한 과학 기술과 설비로 진보된 큐-매트릭스 공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다. 큐-매트릭스 공법은 에코넷만의 독자적인 특수 공법인 공정 효율성을 증대한 TTS공법과 면역력과 기능성을 증대시키는 MAP공법, 영양소 및 유효성분을 유지하는 RWD공법이 조합된 세계 최고의 기술공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된 알로에 원료는 타제품의 공정법으로 생산된 제품보다 신선도와 유효성분의 함유량이 높다. 알로에의 기능성이 크게 증대된 것이다. 이제 보다 신선하고 고기능의 알로에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다른 기획의 장소 ‘하이난’

한국의 에코넷 센터는 이미 여러 매체에 소개될 정도로 건물이가름답다. 그래서 에코넷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자부심이



1. 중국 하이난 농장에 알로에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다. 2. 지난 4월 하이난 농장 안에 원료 가공공장이 문을 열었다. 3. 이병훈 총괄사장이 축하를 하고 있다.
1. Aloe plants in rows at Hainan plantation, China 2. A processing factory was opened in Hainan plantation in April, 2008. 3. Chairman and CEO Bill Lee is applauding.

Hainan, China’s southernmost province, is situated on the same longitude as Aloecorp’s Mexico farm, thus offering an ideal combination of climate and soil conditions for growing aloe. Its location also makes it advantageous for targeting new markets in Southeast Asia and Oceania

ment philosophy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This year, after two decades of overseas farming, the opening of the Hainan processing plant has finally completed the outline for the “global aloe belt” envisioned by ECONET.

Currently, Texas’s Hilltop Gardens (2,640,000m2) and Mexico’s Tampico Farm (the world’s largest single farming complex at 6,150,000 m2) produce 56,000 tons of aloe vera each year. The raw materials thus produced are sold to over 700 companies in more than 40 nations worldwide. The aloe vera Aloecorp supplies to the Americas, Asia, Europe, and Africa accounts for roughly 40% of the world’s entire supply.

With the launching of the Hainan plant, Aloecorp is now able to make inroads into the rest of Asia, including Southeast Asia, and even Oceania. In fact, it is on the cusp of achieving a market share of 50% as an aloe vera supplier, thanks in large part to the comprehensive operational structure of ECONET, which integrates cultivation, production, research, and marketing.

Hainan Farm Produces 4th-Generation Aloe Using the Q-Matrix Method

Primary processing of raw aloe vera has undergone many transformations over the years. Now, Hainan’s processing plant will push the envelope even further by producing fourth-generation aloe using an innovative new method called “Q-Matrix.”

Processing for first-generation aloe consisted of little more than squeezing juice from aloe plants. The safety and sanitation issues that plagued first-generation aloe processing was greatly improv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TTS method, which gave birth to second-generation aloe. Third-generation aloe processing, currently in wide use, uses the PAD system; it produces an active form of aloe boasting three times the efficacy of raw aloe plants.

The fourth-generation aloe that will be produced at the Hainan plant is the very first of its kind. Q-Matrix, a cutting-edge method pioneered by ECONET,



하이난 공장 준공식을 보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있다.
Local residents gathered to see groundbreaking ceremony of Hainan plant.

brings together the high efficiency of the TTS method, the high level of immunity and functionality induced by the MAP method, and the preservation of nutrients and active ingredients enabled by the RWD method. In short, it is the

이제 이 곳 하이난은 2010년이면 최고급 리조트가 들어서
알로에 가공 공장을 넘어 에코넷에
또 다른 성장기회를 제공해 주는 메카로 변신하고 있다.

대단하다. 마찬가지로 일반 공장이라 하기엔 놀랄 정도로 알로콧 차
이나의 건물도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곳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이렇게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은, 함께 오래 일하고자 하는 이병
훈 총괄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진심이 뱀 배려로 보인다.

하지만 차이나 알로콧 차이나의 건물이 아름다운 데는 또 다른 이
유가 있었다. 알로콧 차이나는 알로에 농장 견학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알로에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업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 이미 리조트 건물의 청사진이 준비돼 있었고, 리조트 디
자인에 맞춰 알로콧 차이나 건물이 지어진 것이었다.

2010년 상반기가 되면 하이난 농장-공장에 인접한 지역에 30동의
빌라를 갖춘 리조트가 선보이게 된다. 이 리조트단지에는 알로에 박
물관 및 식물원, 현지 민속마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이제 이 곳 하이난은 알로에 가공 공장을 넘어 에코넷에 또 다른
성장기회를 제공해 주는 메카로 변신하고 있다. ○

어려운 용어 뜻을 쉽게

TTS공법

알로에 가공방법으로 시간(Time), 온도(Temperature), 위생
(Sanitation)의 엄격한 조건에 따른 알로에 가공으로 알로에 유효성
분의 소실을 최소화하는 공법. ‘시간은 짧게’, ‘온도는 낮게’, ‘위생
적’으로 원료를 최적화하는 가공법

PAD공법

알로에 생초 보다 3배 효과가 좋은 액티브 알로에 생산 공법

MAP공법

타사와 가장 차별화되는 공법으로 다당류 증가를 통해 알로에 효능
을 높이는 공법

RWD공법

낮은 열과 시간의 건조만으로 알로에 내의 수분을 제거하는 공법. 열
에 의한 알로에 손실을 방지하고 제품의 질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공법

Today, Hainan is becoming more than the
location of Aloecorp’s aloe processing plant;
it is becoming a mecca for new and innovative possibilities.

world’s best aloe processing method to date. The Q-Matrix method preserves
the freshness of the raw materials and the efficacy of their active ingredients
better and longer than other methods. Thus, it greatly enhances the functionali-
ty of aloe vera. The opening of the new plant has made it possible for Aloecorp
to provide fresher, more efficacious aloe to customers the world over.

A New Opportunity in Hainan

The extraordinary beauty of the ECONET Center in Korea is well-known; it
has even drawn the attention of various media outlets. It’s no wonder, then,
that employees at the center are particularly proud of their workplace. Similar-
ly, the building that houses Aloecorp China is so beautiful that it defies peo-
ple’s ideas of what a factory looks like.

And I learned that, like their counterparts in Korea, the employees working
there feel a strong sense of pride in their environment. I believe that such ded-
ication to building beautiful working environments bespeaks Chairman Bill
Lee’s genuine consideration for his employees and his desire to work together
with them for long years to come.

However, there is another reason for the picturesqueness of Aloecorp Chi-
na’s offices. Aloecorp China is building a theme park that will allow people to
visit its aloe farm and enjoy a leisurely vacation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project’s master plan, blueprints for a resort complex were prepared in ad-
vance, and the Aloecorp China building was built in accordance with the re-
sort’s overall design.

In early 2010, a vacation resort comprising 30 villas will be unveiled in the
area adjoining the Hainan farm and processing plant. The resort complex will
eventually include an aloe museum and arboretum, as well as a folk village
showcasing the local culture.

Today, Hainan is becoming more than the location of Aloecorp’s aloe pro-
cessing plant; it is becoming a mecca for new and innovative possibilities. ○

The Development of Aloe Processing

1st	Gen Gel	Grinding	Extraction of raw juice; compro- mised safety and sanitation
2nd	Gen TTS	Method	Improved method with superior safety and sanitation
3rd	Gen PAD	Method	Active aloe with 3x the efficacy of raw aloe plants
4th	Gen Q-Matrix	New method	with enhanced freshness and functionality

Glossary

TTS

An aloe processing method that adheres to strict conditions of time (short),
temperature (low), and sanitation (high). TTS minimizes the loss of active ingre-
dients in aloe vera and optimizes the quality of raw materials extracted from it.

PAD

A processing method that produces an active form of aloe with three times
the efficacy of raw aloe plants.

MAP

Aloecorp’s differentiated method that raises the effectiveness of aloe by in-
creasing the amount of polysaccharides.

RWD

A method that involves dehydrating aloe at low temperatures over time. RWD
prevents the loss of aloe through heat and preserves the quality of the product.



자원봉사란 이런 것

글 | 이광훈 | 인천영업팀장 | 유니베라 한국

‘베풀 수 있어 행복하다’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자원봉사가 아닐까? 유니베라의 많은 대리점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중 한 곳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무의탁노인과 함께)의 보람을 나누고자 한다.



자원봉사를 마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Participants' gathering after voluntary work.

우리는 누구나 매일, 매시간 선택의 자유를 부여 받고 살고 있다. 행복을 선택하든, 불행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당신이, 내가 선택한대로 될 것이다.

가을이 다가온다는 느낌마저 드는 어느 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이때, 인천영업팀 직원들과 부천 상동대리점의 사장님, 실장님, 팀/부장님들이 부천의 한 무의탁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집안에 들어서자 병자들한테서 나는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40평 남짓한 집은 중앙의거실 겸 예배당, 병원용 침대가 놓여있는 허술한 방 3칸,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배당에 앉자마자 들려온 부천 상동 실장님의 한마디가 웬지 모를 답답한 생각을 들게 했다. “지난번 왔을 때 계시던 분들이 없네. 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다른 분들께서 오셨나 봐요?” 여기는 50대 초반의 목사님 부부가 단지 후원금만 가지고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시는 목사 부부의 잔잔한 미소와 소박한 차림에서 묵묵히 이 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봉사활동 시작! 그런데 난감한 사태가 발생했다. 행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욕을 시켜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해도 할머니들을 목욕시켜드려야 한다는 말에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다. 우리 봉사자들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용기 있게 실장님이 팔을 걷어 부치고 목욕탕으로 가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였다. 엉거주춤하게 서있던 총각 사원 2명(추장원, 김우진)이 뒤따라 할머니, 할아버지 목욕을 도와드렸다.

우리 막내 사원 김우진씨는 마치 본인의 어머니를 모시듯 넉살스

러운 농담을 섞으며 너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드렸다. 언제 망설임이 있었냐는 듯한 모습이었다. 추장원 사원 역시 조금은 어색하지만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보고 있던 팀장, 부장님들이 농담을 던졌다. “우리 두 분은 총각인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어르신들 목욕시켜 드리는데, 총각이 뭐 문제인가요? 하하하”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처음 보는 남자들이 시켜주는 목욕에 약간은 불안해하시던 할머니들. 이런 할머니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한 분 한 분 목욕을 도와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보였다. 목욕을 하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잠시 후 부천 상동대리점의 문원용 사장님이 회사에서 후원하는 후원금과 대리점에서 준비한 선물을 목사님께 전달했다. 그런데 뭔가 아쉬움이 남은 우리 팀원들은 힘닿는 한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조금 더 모아 목사님께 전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원봉사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지 발견하는 것. 작은 정성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행복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이라고.

이곳에서 9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신 부천상동대리점 문원용 사장님과 식구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싶다. 세상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 많은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좋아지고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다. 이런 기회를 주신 회사에 감사한다.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를 향해 멋지게 전진하는 유니베라 파이팅! ○

The True Meaning of Volunteering

By **Gwanghoon Lee** | Team Manager | Incheon Sales Department | Univera Korea

Becoming a volunteer is perhaps the most effective way of learning about the joy of giving. Univera’s numerous retail branches carry out a wide range of social services everyday. In this issue, we highlight the activities of the staff at one such branch, who volunteered their time at a shelter for homeless seniors.

We each enjoy the freedom of choice every day, every hour. Whether we ultimately find happiness or the opposite, it is our choices that determine what results will follow. One day, when fall seemed particularly close and the temptation to go somewhere far away was particularly strong, the members of the Incheon Sales Department and the managing staff of the Sangdong retail branch visited a shelter for homeless seniors in Bucheon. As soon as they set foot inside the building, they were assailed by the pungent smell of illness and disease. The shelter, which was smaller than 1,500 square feet, consisted of a central living area, which also served as a chapel, three ramshackle rooms containing hospital beds, a kitchen, and a bathroom. When we sat down in the chapel, the office manager of the Sangdong branch made a remark that sat heavily on my mind. “I can’t see the folks that were here the last time we came. I guess they all passed away, and new people have filled their places.” The shelter is run by a minister in his early 50s and his wife. The couple has kept up the struggling institution for over a decade on donations alone. In the placid smile and simple attire of the minister and his wife as they briefly introduced their facility, I could glimpse their unostentatious but steadfast dedication to serving others. There was beauty in such selfless devotion. Once the introductions were over, our volunteer activities began in earnest. But things hit a snag early on. We were instructed to bathe the physically infirm inhabitants of the shelter, and the thought of having to bathe the women, as well as the men, struck everyone with squeamish hesitation. Some of us, in fact, were young unmarried men whose sense of propriety had yet to be tested by experience. Finally, our team manager resolved the situation by rolling up his shirt sleeves, stalking to the bathroom, and demonstrating how the work should be done. Two of the younger staff members (Jangwon Chu and Wujin Kim), who had been standing by awkwardly, soon

followed his lead. Kim, our department’s youngest, made his charges comfortable by carrying on an easy conversation and joking around with them, as if he were assisting his own mother. His hesitation of a moment ago seemed like a distant memory. Chu also did his best in this unfamiliar task, with beads of sweat standing out on his brow. The managerial staff, looking on, playfully teased them. “I guess you two are not embarrassed at all, even though you’re not even married yet.” “What does being married or not have to do with helping the elderly, right?” Everyone joined in with laughter and good humor. Understandably, the elderly women were somewhat uncomfortable at the prospect of being bathed by strange men. Nonetheless, our volunteers managed to put them at ease with casual banter even as they exerted themselves at their exhausting task. Despite the sweat pouring down their faces, they looked as happy as could be. And so did their charges. Afterwards, the manager of the Sangdong branch presented the minister with gifts from the branch and a donation from Univera. Wishing to help in what little way we could, our troop of volunteers took up a collection among ourselves and presented that as well. On the way home, I pondered the true nature of volunteering and realized that it consisted not in helping others, but in discovering how much we each have to be happy and thankful for, knowing that even a small effort can bring great happiness to many, and thus creating happiness for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admiration for the manager of the Sangdong branch, Mr. Wonyong Moon, and his staff, who have been dedicating themselves to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past nine years. I believe that the world becomes a better, happier place because of acts of beauty that may be tiny but are also innumerable, like sand on a beach.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Univera for giving me such a valuable opportunity. Three cheers for Univera, a “happy workplace where dreams are shared”! ○

상쾌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 준 유니베라

글 | 안젤린 토트 | 다이아몬드 | 유니베라 미국



“현재 난, 단 17개월 만에 유니베라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환상적인 보람찬 수입 덕분에 제니아 센터도 매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애써준 많은 유니베라 가족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닌 여섯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를 설득해준 르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녀는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이다.”

I was sleeping soundly and
woke up energized and happy

All this certainly got my attention

By **Angelyn Toth** | Diamond | Univera USA



제니아를 통해 매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보람을 가져다 주었다. Kim realized that he had neglected his responsibility as General Manager to train and educate his employees, and developed a new training program for UPs.



내가 유니베라를 발견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사고였다. 정말로 나는 그 때 사고로 무릎을 다쳤는데,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 이후 2개월 동안 말을 타는 것은 고사하고 걷는 일 자체가 고통이었다.

그 때 구세주가 나타났다. 몇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오랜 친구인 Renee Poindexter가 내게 Ageless Xtra 와 Regenicare를 갖다주기 위해 600마일을 달려온 것이었다.

3일도 채 되지 않아 고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예전처럼 5킬로미터에 달하는 길러니 호수 주변 숲길을 다시 오르내려도 무릎에 희미한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게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고, 아침이면 지난 밤의 숙면 덕분에 매우 상쾌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유니베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유니베라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제품 판매에 직접 뛰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네트워

크 판매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내가 운영하고 있던, 태평양 인접 천연림에 자리잡은 기도원인 보웬 섬의 제니아 크리에이티브 개발 센터(Xenia Creative Development Centre)가 매년 전세계 곳곳에서 수백 명의 참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바쁜 상태였다.

그러나 진실은 내가 매우 지쳐있었다는 것이다. 제니아를 통해 매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보람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러는 약 13년간 나는 스스로를 너무 혹사시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르네가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있었던 Stephen Cherniske의 강연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나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연을 듣자마자 나는 이연호 회장의 비전에 감동을 받았고, 유니베라의 과학이 실질적일 뿐 아니라 매우 획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버렸다.

하지만 제니아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던 상황에서 유니베라에 시간과 공을 들일 시간을 더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전 세계의 리더들과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천 에이커에 달하는 자연림과 별판, 호수, 산책로와 같은 천연의 자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하겠다는 제니아의 궁극적인 비전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2년 뒤 나는 유니베라가 제니아 운영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난, 단 17개월 만에 유니베라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환상적인 보람찬 수입 덕분에 제니아 센터도 매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애써준 많은 유니베라 가족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닌 여섯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를 설득해준 르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녀는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이다. ●

I came across Univera by accident. Literally, I had an accident and hurt my knee-it was so painful, I thought it was broken. Over the next two months, it was agony to walk any distance and I certainly couldn't ride my horses.

Then my savior arrived! Namely, Univera: in the person of my old friend, Renee Poindexter, whom I hadn't seen for years. She drove 600 miles to gift me some Ageless Xtra and Regenicare.

Within three days, I was without any discomfort. I resumed my daily walk-up and down through forest trails for 5km around Killarney Lake-without even a twinge from my knee. It was a miracle! I also noticed my desire for coffee fell away, I was sleeping soundly and woke up energized and happy. All this certainly got my attention.

Yes, I wanted the Univera products, but there was no way I was getting into the business. Not interested! From past experience, I "knew" that network marketing was not for me. And besides, running my retreat center nestled in a pristine Pacific rainforest-Xenia Creative Development Centre on Bowen Island-which each year was now attracting hundreds of participants from all over the world, was keeping me more than occupied.

But the truth was I was tired. My work was incredibly rewarding. Through Xenia, I was helping to transform hundreds of lives, young and old, for the better every year. But to do that year in and year out for 13 years, I had been stretching myself

too far. I was feeling burned out and really ready for a miracle when Renee invited me to hear Stephen Cherniske speak in Portland, Oregon.

Right away I knew that the vision of Yunho Lee was authentic, I knew the science was not only real but revolutionary. And best of all, I loved the people I met.

But Xenia was already gobbling up all my energy, how could I possibly find even more time and effort for Univera? It seemed impossible, I would never betray my ultimate vision for Xenia: providing the perfect natural venue-amongst a thousand acres of forest, meadows, lakes and trails-for leaders and learn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to gather and generate new ways to change our world.

Two years later, it turns out that Univera was not the undoing of Xenia, but the making of it! Now that I am a Univera Diamond (achieved within 17 months) and enjoying a fantastic and rewarding income-which is continuing to steadily grow no matter what I happen to be doing-my plans for Xenia too are proceeding with effortless ease and grace. None of this could have happened without the extraordinary-yes, even mind-blowing-willingness to go out of their way to help me that so many people at Univera have demonstrated. And I am so grateful to Renee for not accepting my first "No"... nor my second "No". nor even my sixth "No!". She has done me one of the biggest favors of my life. ●

None of this could have happened without the extraordinary-yes, even mind-blowing-willingness to go out of their way to help me that so many people at Univera have demonstrated. And I am so grateful to Renee for not accepting my first “No”... nor my second “No”. nor even my sixth “No!”. She has done me one of the biggest favors of my life.



김지호 사장과 연신내 영업국 UP들이 지난 여름 중국 하이난 농장에서 연수를 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유니베라 최우수 영업국을 일궈낸
연신내 영업국 김지호 사장](#)

대리점 경영의 안정은 지속적인 교육이 관건

글 | 박정아 팀장 | 고객센터팀 | 유니베라 한국

연신내 영업국의 김지호 사장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주 작은 사장실이었는데, 유피(UP)들이 활동하는 넓은 공간과 비교해보면 보잘것없는 사무실이었다. 이는 유피(UP)들을 귀하게 여기는 김지호 사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유니베라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해부

터 꾸준히 기록해온 다이어리가 사장실의 책꽂이 한켠에서 발견되었다. 유니베라(개업당시 ‘남양알로에’)와 함께 한 모든 역사가 담긴 중요한 기록이었다. 그 기록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김지호 사장은 유니베라와의 인연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IMF 당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이런 저런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방황하며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건강

(간)도 나빠진 상황에서 청주에서 (구)남양알로에 대리점을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 남양931, 알로엑스골드 제품을 만나면서 알로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가족 모두가 놀랄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대리점 사장이었던 친구의 권유와 맞벌이하는 부인의 지원으로 새로운 각오와 함께 대리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활동하는 유피(당시 ‘설계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



Kim realized that he had neglected his responsibility as General Manager to train and educate his employees, and developed a new training program for UPs.

[Kim, who turned his office into the
best sales office in Univera,](#)

Recently shared the story of his success

By **Jeongah Park** | Team Manager | CS Team / Univera Korea

What I first noticed upon walking into the office of Yeonsinnae Sales was the extreme smallness of the General Manager Jiho Kim's room. Compared to the spacious area allotted to UPs (Univera Planners), his office was little more than a closet. The contrast was surely an indication of Kim's servant leadership, his loving care of the UPs under his charge.

A journal he has kept meticulously since the

year he started operating the dealership stood in one corner of his bookcase. It was a precious record of his entire history with Univera (then Namyang Aloe). Talking about the journal led us naturally to the story of his relationship with Univera.

The IMF crisis that hit Korea had left him out of a job. He tried one business after another, only to see them all fail. He turned to drink; he drank

so heavily, in fact, that his liver began to suffer. Then, just when things seemed at their worst, he got together with a friend who managed a Namyang Aloe dealership in Cheongju. Kim was introduced to Namyang 931, Alo-X Gold through his friend, and this sowed the seeds of his present career. His health improved so much that even his family was surprised. Urged by the encouragement of his friend and the support of his

힘든 시기일수록 사장으로서의 자기관리가 중요한데, 자기관리의 핵심은 자신을 낮추고 유피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 유피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고(경청), 지원해주게 되며 그 결과로 유피는 사장과 교감하게 되고 이어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연신내 영업국 UP들이 알로에 농장에서 잡초를 정리하고 있다.

했다.

아직까지 같이 일하고 있는 입사동기와도 같은 장동의 부장과 함께 영업담당이 알려 준 방법대로 샘플을 나누어주는 홍보부터 시작했던 김지호 사장의 말에서 당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란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人)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다고 그는 회상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유니베라 사업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었으며,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이 점을 가장 강조한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점 경영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유피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 때가 2004년 6월이었다.

가정 주부로서 대리점에 입사한 대부분의 유피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마인드를 갖도록 미처 육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몇 명의 팀장이 퇴사를 한 후 전체 조직이 흔들리며 전염병처럼 퇴사가 이어졌고,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가 닥쳐왔단다. 김지호 사장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장으로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유피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교육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는지, 동료들이 잘 따라주었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2005년부터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77% 성장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7년 실적 기준 최우수 영업국으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유니베라 스타상, 조직 1단계 성장상 등을 수상하게 되었다.

연신내 대리점 교육 프로그램에 따르면 신입입작, 마사지 교육, 도전반, 활성화반을 거쳐야만 본사에서 인정하는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팀장들을 대상으로 예비부장아카데미까지 운영하여 자체 자질향상과정을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한 결과 연신내 대리점 팀장의 평균 급여가 타 대리점에 비해 높게 책정됐으며 이직율도 급감하였다고 한다. 김지호 사장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 대리점 경영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영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한 힘든 시기일수록 사장으로서의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 자기관리의 핵심은 자신을 낮추고 유피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 유피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고(경청), 그것을 지원해주게 되며 그 결과로 유피는 사장과 교감하게 되고 이어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유피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장이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앞으로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유니베라 대리점 사장들과 이런 경험들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육성한 유피가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점 사장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니베라를 통해 성공이라는 단 열매를 맛본 김지호 사장의 동료애가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김지호 사장과 이번 만남은 유니베라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



UPs are weeding in Hainan Aloecorp farm.

wife, who also worked, Kim embarked on his new venture with a renewed sense of determination. He forged ahead and opened his store, without even a single UP on staff.

Kim said that he, along with now-longtime colleague Dongeui Jang, began by distributing promotional sample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company's sales manager. Even from this simple account, it wasn't hard for me to imagine the myriad hardships he must have undergone at the time.

In spite of such difficulties, he recalled, he had never lost sight of the fact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business was "people." Univera, as a company that provided health and beauty, was committed to the work of moving people and encouraging them to embrace change. Remembering this got him through even the worst of the adversities, he said, adding that this fundamental fact was something he stressed the most fervently to all his co-workers. He confessed that this same consideration was what prompted him to strengthen the UP training program at a particularly difficult juncture for his business. The time was June 2004. And several

of the Team Managers had left the dealership in quick succession. The UPs, most of whom had been stay-at-home wives before they joined the company, had unfortunately lacked the opportunity to cultivate a professional mindset, which in turn had led to a general lack of commitment. The Team Managers' departure left the organization shaken. It triggered a mass exodus of employees, and a catastrophic drop in sales revenue. Kim realized that he had neglected his responsibility as General Manager to train and educate his employees, and developed a new training program for UPs.

Whether because the program was so effective or because his employees participated so earnestly, sales began to soar in 2005. Since achieving an astonishing annual growth of 77% in 2006, Kim's dealership has been recording consistent growth. It was named the best-performing dealership in 2007, and subsequently received such honors as the Univera Star Award and the 1st Phase Organizational Growth Award. Yeonsinnae Dealership Training Program : Only those who have undergone the "New Employee Orientation," "Massage Practice," "Advanced

Challenge," and "Application and Actualization" classes can be promoted to the post of Team Manager recognized by the company headquarters. Team Managers also take part in the preparatory academy for would-be Department Managers run independently by the dealership, thereby receiving intensive training to cultivate the necessary professional and leadership qualities. As a result of such training, the Team Managers at the Yeonsinnae dealership receive a higher average salary than their counterparts at other dealerships, and the turnover rate has fallen dramatically. Kim is confident that the consistent operation of these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can guarantee the stability of his business and enhance its durability.

He also affirms that, as General Manager, self-discipline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n times of trouble, and that such self-discipline consists in lowering himself and respecting his UPs. Only then can a manager truly understand what his UPs need, provide for those needs, and build a bond of sympathy with them. This bond, he continued emphatically, then leads to increased dedication and diligence. His philosophy, in a nutshell, is that the manager is the person responsible for cultivating active and committed UPs.

Finally, Kim noted that he wished to share his experience with other Univera dealership managers who would tread the same path he did. Further, he revealed his intention to provide active assistance, including financial support, for any of his UPs who went on to become the General Manager of a Univera dealership. His plans bespoke the heartfelt camaraderie he possessed as someone who had tasted the sweet fruit of success through Univera. My meeting with General Manager Jiho Kim left me buoyed up with the hope that an ever brighter future lay in wait for Univera. ●

My Precious Person

When somebody asked me if there was someone I admired such as a relative, friend, coworker no one came to mind at that moment, frankly speaking there are thousands of people in our World that could be admirable. Being someone that likes culture, art and science, I can find important icons through the ages that have written their names with gold ink on the walls of history.

Greatest philosophers, mathematicians and plastic artists have left their legacy; part of their lives expressed in lines and letters that describe happy and wail emotions, numbers and formulas to transform and build, on images and textures that can transport us through landscapes unimaginable by the human being. From Philosophers as Socrates, mathematicians as Aristotle and Arqu?medes, Artist as Picasso and Dali, greatest musical genius as John Lennon, all of them admirable. However, none came to my mine at that moment.

Even with the great legacy they left, I have never found more beautiful musical syllables that made me feel and vibrate, I have not found philosophers that can better explain the most simple and sublime things of our life, I have not found in them the best teachings of life.

Can I say there is no one I admire? Maybe all of them are good at what they do, just like my co-workers and friends. But if I should admire somebody I am sure that in my memory walls there must be embossed in gold my family names, since in them I find greater support than the one I can obtain from Arquimides's entire life studies. It is with them that I can find the greatest musical syllables every time we talk than the ones I can find in hundreds of musician concert hours. Because there is not a better job in the history of the human kind than the one they do for each of us, because in them I have found the greatest teaching of life that I will never forget as I can forget the ones that I learned from the books. Because there is no better formula than the one they gave to me. Yes I admire somebody, my parents! How can I include a picture of them if they are for the mankind men and women with no face but each of us has our parents' images in our memory.

If I have to admire somebody, I think there is no one that deserves it more than them, for they did the hardest job always with the same determination and effort even though the payment was not always the same. When you admire somebody's work we always hope to be better than our teachers and when I look at the results they have it's hard to think that I can be better, I know that I will get from both sides my determination and effort. If I should admire someone there are no names before theirs since there is not a most admirable action than my parents' for doing in each of us the greatest miracle in the world.

“Too much to learn from them and too little time”

-Engineering in Computer System Cesar Omar Orozco IT-



Mi personaje preciado

Cuando me preguntaron si admiraba a alguna persona, conocido, amigo, compaero de trabajo, etc.. no me cruzó nadie por mi memoria, aunque siendo sincero, cientos de personas hay en nuestro mundo que pueden ser admirables. Siendo una persona que le gustan la cultura, las artes y la ciencia, puedo encontrar grandes personas atreves de nuestra línea de tiempo que han escrito sus nombres con tinta de oro en las paredes de la historia.

Grandes filósofos, matemáticos y artistas plásticos nos han legado parte de su vida plasmada en líneas y letras que nos describen emociones de alegría y lamentos, números y formulas para transformar y construir, en imágenes y texturas que nos transportan a paisajes inimaginables por el hombre. Desde fil?sofos como Sócrates, matematicos como Aristoteles y Arquimedes, Artistas como Picasso y Dalí, grandes genios de la música como John Lennon, todos ellos admirables. Y sin embargo, ninguno me vino a la mente en el momento de la pregunta.

Es que, aun a pesar del gran legado le ellos nos dejan, nunca he encontrado mas hermosas notas musicales que me hagan sentir y vibrar, no he encontrado filósofos que expliquen mejor las cosas más sencillas y sublimes de la vida, no he encontrado en ellos las mejores enseanzas de vida.

Puedo decir que no admiro a nadie?, tal vez, son buenos todos ellos en lo que hacen, de la misma forma que mis compaeros de trabajo y mis amigos, pero si he de admirar a alguien, seguro estoy que en las paredes de mi memoria estarán grabadas con oro los nombres de mi padres y hermanos, ya que en ellos encuentro un mejor punto de apoyo que el que podría encontrar en toda una vida de estudio de Arquímedes, es en ellos que encuentro las mejores notas cuando entablamos alguna charla que las que podría encontrar en las cientos de horas de conciertos de artistas y músicos. Porque no hay mejor trabajo en la historia de la humanidad que el que hacen ellos por todos y cada uno de nosotros, porque en ellos he encontrado las mejores enseanzas de la vida y que no olvidar como podría olvidar aquellas que se encuentran en los libros. Porque no hay mejores formulas que las que ellos me han entregado. Si, admiro a alguien, a mis padres. Que a cada una fotografía, ellos son para la humanidad hombres y mujeres sin rostro, pero cada uno de nosotros lleva la ima-

gen de ellos adjunta en nuestra memoria.

Si he de admirar a alguien, creo que no hay más merecido que ellos, por haber realizado el trabajo más duro siempre con el mismo empeo y esfuerzo, aun que los dividendos nunca fueron siempre iguales. Cuando se admira a alguien por su trabajo, espera uno superar a sus maestros, y al ver los resultados que ellos hicieron, me cuesta trabajo pensar que lo superar, se que el esfuerzo y el empeo me vendrán por el doble. Si he de admirar a alguien no hay primeros nombres más que el de ellos ya que no hay acción más admirable que el de nuestros padres por realizar en cada uno de nosotros el milagro más grande del mundo.

“Tanto que aprenderles y es tan corto el tiempo”

-Engineering in Computer System Cesar Omar Orozco IT-



사진 콘테스트



1등 우리 다했죠?

김훈경 대리 | 고객지원팀 | 유니베라 한국

“사랑하는 주은이의 첫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커플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1st Prize Prize We're a Family

Hungyeong Kim | Customer Support Team | Univera Korea

We took this 'family couple' photo on our darling Jueun's first birthday.

‘커플’ 하면 생각나는 사진콘테스트 당첨자 소개 에코네시안 여러분,

이번 사진콘테스트는 리뉴얼호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다 뽑아드리지 못하여 아쉽지만 다음 사진컨테스트에 꼭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 주제는 ‘가장 동안인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진콘테스트 입니다. (실제나이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Photo Contest

Winners of the Photo Contest: Who Do You Think of First When You Hear the Word “Couple”?

We would like to thank all ECONETians for their enthusiastic response to the photo contes in our renewal issue of ECONET Way.

We regret not being able to reward everyone who submitted an entry, and earnestly hope that

you'll continue to enter in future contests. The theme for next issue's contest is “Who Has the Youngest-Looking Face?”

Please remember to note the person's actual age in your entry.



2등 단짝 친구 ‘그러프과 루거’

브룩 페이 | 유니젠 | 품질 관리 연구원

“지금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네요... 앞으로 나아질 거라 믿어요.”

2nd Prize Best Friends... “Gruff and Ruger”

Brooke Fay | QC Research Associate | Unigen USA

I know we don't have much time... hopefully it will get better in the future

3등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최영재 | 교육기획팀 | 유니베라 한국

3rd Prize We Go Pretty Well Together

Yeongjae Choi | Education Planning Team | Univera Korea





아차상1 신혼

에스메랄다 | 인사과장 | 알로콧 멕시코

“엘비아와 이스라엘 아랑고가 이번 주말에 결혼하였습니다. 맥시코의 탐피코, 미라마르 해변에서 열린 결혼식 직후에 촬영했습니다.”

Just Missed Prize1 Newlyweds

Esmeralda | Human Resources Manager | Aloecorp de Mexico

Elvia married Israel Arango this weekend. The attached picture was taken right after their civil wedding ceremony, which took place in Miramar Beach in Tampico, Mexico.



아차상4 함께 한 아름다운 50년

최수정 | 경영지원팀 | 네이처텍

Just Missed Prize4 Those beautiful so years together

Sujung Choi | Administration | Naturetech

아차상2 내 조카와 올케

린 M. 라이텐 | 선임 회계 담당자 | 유니베라 미국

Just Missed Prize2 My Niece and Sister-in-Law

Lynn M. Reiten | Sr. Accounting Manager | Univera USA



아차상3 우리도 커플입니다.

켈리 첸 | 알로콧 중국

“어때요, 우리 잘 어울리죠? 살 맛 난답니다.”

Just Missed Prize3

Look! Are we well matched?

We are having lots of fun

Kelly Chen | Aloecorp China

아차상5 우리는 형제

조영일 대리 | 경영지원팀 | 에이처텍

“조 형제가 나가신다!”

Just Missed Prize5 Cho brother!

Yungil, Cho | Administration | Naturetech

Here come the cho brothers!



선물을 드립니다 Will be awarded to the winner

1등 홍삼액 골드 1st Prize Red Ginseng Tonic Gold

2등 남양931 덕용 2nd Prize NY 931

3등 알로맥 프로 3rd Prize Aloemeg Pro

아차상 리니시에 2종 세트 Just Missed Prize 2-piece L'initi set

에코넷기업본부 / ECONET KOREA Holdings

가족과 함께, 에코넷 함께 음악회



지난 8월 22일 경기도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 캠퍼스에서 에코넷 한국 가족 행사인 ‘가족과 함께, 에코넷과 함께’가 열렸다. ECONET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한 자리는 장사 이래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행사는 에코넷이 현재까지 성장하는데 힘이 됐던 임직원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가족들의 희생과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열린 것이다. 특히 이 행사는 에코넷 가족들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에코넷의 역사적 현장을 담은 사진과 제품들, 그리

고 글로벌 농장 대형 사진들이 전시됐다. 또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등 다양한 놀거리가 제공됐다. 특히 소녀시대, 쿨, 태진아씨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행사를 뜨겁게 달궜다. 뿐만 아니라 MC 박준형씨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가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CD와 에코넷 제품들을 선물로 제공,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는 비 때문에 야외행사가 다소 축소됐지만 500여명의 에코넷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Concert: “With the Family, With ECONET”



On August 22nd on the Icheon campus of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ECONET Korea held its family event, “With the Family, With ECONET.” The event, attended by the ECONET staff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was the first of its kind since the company’s founding. The festivities were held in appreciation of the passion and dedication of ECONET’s many employees and the sacrifice and support of their families, without which ECONET would not be what it is today. This special event was a unique opportunity

for everyone to feel pride in their membership in the ECONET family and to reaffirm the love of their own families. Photographs and artifacts testifying to ECONET’s history were on display at the event, along with gigantic photographs of our farms worldwide. Other entertainments on offer included face-painting and caricature booths. In particular, performances by such popular singers as Girls’ Generation, Cool and Tae Jin-ah helped raise the fun level to a higher pitch. Park Jun-hyung, who served as MC, gave out gifts of autographed CDs and ECONET products by random drawing, to the enthusiastic response of the audience. While the outdoor portion of the day’s festivities was trimmed down due to rain, the participation of more than 500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made the event a rousing success.

리조트 매니지먼트 법인 설립

에코넷은 지난 6월 18일 홍콩에 리조트 매니지먼트회사인 Vera Resorts Limited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호텔리어인 권원식씨를 Chairman and CEO로 선임하였다. 이는 Wellness사업 진출과 농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에코넷이 추진해온 리조트 사업을 좀 더 정교한 전략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Vera Resorts는 리조트 매니지먼트 법인으로 리조트의 컨셉개발, 브랜딩, 디자인, 건설, 마케팅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게 되며, 해남도 리조트 프로젝

트를 필두로 향 후 모든 유니베라 리조트의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외부 기업 및 단체의 리조트 개발에 대한 자문과 브랜드 라이선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Vera Resorts의 초대 CEO인 권원식 회장은 1969년부터 최근까지 Sulo Group, Hotel Lotte, Regent International Hotels Group, Hong Kong Parkview Group 등 유수의 호텔체인에서 전 세계에 수많은 호텔을 직접 개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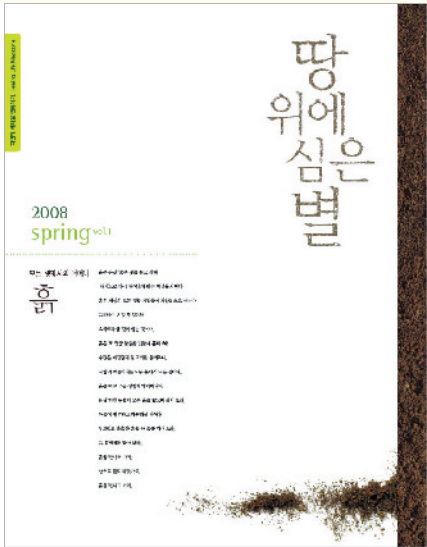
New Resort Management Company Established

On June 18th, ECONET launched its resort management company Vera Resorts Ltd. in Hong Kong and appointed world-famous hotelier Wonsik Kwon as its chairman and CEO. This latest move is aimed at enhancing the strategic precision and momentum of ECONET’s resort business, which it has been pursuing as part of its larger plan to advance into the Wellness industry and heighten the value of its farms. Vera Resorts will provide consultation on the concept development, branding, design, construction, marketing, and operation of resorts. It will also steer the development of all Univera resorts in the future, starting with the Hainan Resort. In addition, it plans to launch a brand licensing business and offer consultation for outside companies on resort development.

Newly-appointed Vera Resorts Chairman Kwon has earned a worldwide reputation for his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ultation of countless hotels around the world since 1969. His celebrated career includes such first-class hotel chains as the Sulo Group, Hotel Lotte, the Regent International Hotels Group, and the Hong Kong Parkview Group.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사외보 ‘땅위에 심은 별’ 더 스티브 어워즈 본상 수상



유니베라 한국 사외보 ‘땅 위에 심은 별’ (=땅별)이 9월 올해 국제 비즈니스 대회(IBA)에서 ‘더 스티브 어워즈’ 본상을 수상했다. IBA는 기업(기관, 단체)의 모든 활동과 성과

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분야 국제대회로, 더 스티브 어워즈는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the business world’s own Oscar Awards)’으로 평가되고 있다. 땅별은 Wellness Life Magazine의 컨셉으로 2008년 3월 창간, 흙을 주제로 한 봄호를 시작으로 물을 테마로 한 여름호까지 발행됐다. 땅별은 유니베라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건강과 자연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사진과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상 시상식은 9월 8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있었다.

Univera’s House Organ “Stars Planted on Earth” Honored as Finalist for Stevie Award

Univera Korea’s magazine “Stars Planted on Earth” was honored as one of the finalists for the coveted Stevie Award in the Corporate Literature category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 held in September. The IBA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test in the business sector to recognize all activities and achievements by companies and businesses around the world, and is known as the Academy Awards of the business world. Univera’s “Stars Planted on Earth,” which was conceived as “Wellness Life Magazine,” was launched in March 2008. Published seasonally, the magazine’s inaugural Spring issue was centered around the theme of “Earth.” The subse-

quent Summer issue, which is also the most recent, takes “Water” as its theme. “Stars” has received critical acclaim for presenting stories about health and nature that convey Univera’s values and philosophy in a format distinguished by beautiful photographs and sophisticated design. The award ceremony took place on September 8th in Dublin, Ireland.

한사랑 나눔캠페인 협약식

유니베라와 사랑의 열매가 공동으로 진행하



는 제 4차 한사랑나눔 캠페인의 협약식이 8월 6일 개최됐다. 한사랑 나눔 캠페인은 희귀 난치병에 걸리고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와 수술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기 위해 펼치고 있는 운동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유니베라 이병훈 총괄사장과 사랑의 열매 신필균 사무총장의 협약서 교환이 있었다.

Signing Ceremony for the “Hansarang Sharing Campaign”

The signing ceremony for the fourth “Hansarang Sharing Campaign,” run jointly by Univera and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CCK), was held on Au-

gust 6th. “Hansarang” means “great love” in Korean; accordingly, this campaign aims at helping children who have been diagnosed with rare and deadly diseases but whose families cannot afford the necessary surgeries and treatments. At the ceremony, Univera Chairman Bill Lee & CEO and CCK Secretary General Pilkyun Shin exchanged their signed agreements.

유니베라 조직변경 및 신임본부장 임명



유니베라는 지난 7월 조직변경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실행력을 높여 전략기능과 제품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니베라는 조직개편에서 전략기획팀을 사장 직속으로 배치해 전사전략과 영업전략을 수립, 실행하게 된다. 또 R&D강화를 위해 마케팅본부에서는 화장품을, 연구소에서는 건강식품 라인을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할인제품 근절을 위해 유통관리를 신설,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유니베라는 신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광병현(사진 왼쪽) 상무를 임명했다. 또 유니베라의 세계화 전

략에 맞는 Global IT도입을 위해 Global IT 본부장으로 오해영 부사장(오른쪽)을 새로 영입했다.

Restructuring and New Appointments

Univera undertook a structural reorganization in July of this year,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any’s strategic functionality and product development capacity. During this round of restructuring, the Strategy & Planning Team was placed directly under the CEO’s office and charged with establishing and executing corporate and sales strategies. In addition, a new division of labor aimed at fortifying R&D placed the Marketing Division in charge of cosmetics and the Research Institute in charge of the health supplement line. At the same time, a new Distribution Management Team was created in an effort to eliminate the sale of unauthorized discounted products through the internet. Univera appointed Managing Director Byeonghyeon Kwak(left) as the new head of the General Management Division, and newly recruited Vice President Haeyeong Oh(Right) as the head of the Global IT Division, charged with introducing a global IT system suited to Univera’s globalization strategy.

네이처텍 / NatureTech

월별행사

네이처텍의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만

들기’ 행사가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네이처텍은 2월 옷놀이 대회를 시작으로, 한마음 체육대회(4월), 음식만들기 경영대회(6월), 당구대회(7월), 사진 컨테스트(8월), 바비큐 행사(9월) 등을 진행했다. 정찬수 사장 취임 뒤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함께, 동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Monthly Events



NatureTech’s ongoing campaign, “Making a Happy Workplace Where Dreams Are Shared,” has been enjoying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its employees. Starting with a traditional “Yunnori” competition in February, NatureTech held a sports competition in April, a cooking contest in June, a

billiards tournament in July, a photo contest in August, and an outdoor BBQ in September. These events, which have followed the installation of CEO Chansoo Chung, are being praised by employees for “building solidarity and nurturing affection among co-workers.”

Idea Lab & 로비 리모델링



네이처텍은 9월 Idea Lab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Idea Lab에는 벤치마켓을 할 수 있는 우수 샘플들을 전시하고, 향후 ODM 제품생산에 기초가 되는 제품의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네이처텍은 이와 함께 본관 로비를 새로 단장, 네이처텍의 제품은 물론 네이처텍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네이처텍은 이를 통해 네이처텍을 방문하는 외부들에게 회사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The Idea Lab & Lobby Remodeling

In September, NatureTech opened the Idea Lab

and kicked off its activities. The Idea Lab will exhibit superior products and samples for benchmarking, and will function as a space for promoting the design, marketing, and technological prowess of NatureTech in the creation of future ODM products. NatureTech remodeled the lobby of its main offices to coincide with the opening of the Idea Lab. The new look showcases NatureTech’s products while providing an overview of its past and present. It is designed to serve as a natural introduction to the company for outside visitors, and a way to inspire company trust.

정찬수 사장, 제2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건강기능식품부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상 수상



네이처텍 정찬수 사장이 지난 7월 보건산업 최고경영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보건산업 대상 건강기능식품부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 상은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선진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주는 상이다.

NatureTech CEO Chansu Jeong Honored at the 2nd Korea Health Industry Awards

In July, NatureTech CEO Chansoo Chung received the KFDA Commissioner's Award in the health supplement category of the 2nd Korea Health Industry Awards. The award recognizes businesses and individuals who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health industry,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public's health and quality of life.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유니젠 한미 통합 및 대표이사 취임

유니젠이 지난 7월1일 한미통합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통합으로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돼 오던 유니젠이 글로벌 유니젠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이로써 유니젠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천연물 신소재 개발에 이어 천연물신약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적 수준의 기업이 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대표이사 이취임식이 있었다. 그동안 유니젠을 이끌었던 김동식 사장의 이임식에 이어 에드 캐논(Dr. Ed Cannon)사장의 취임식이 이어졌다. 에드 캐논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의 미션과 열정을 항상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자”며 “미래의 유니젠이 세계 속에서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캐논 사장은 지난 29년간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Merging of Unigen Korea and Unigen USA



On July 1st, Unigen announced the merging of its offices in Korea and the US, which had been operating until then as two separate entities. The consolidation marked the birth of a new and global Unigen. By providing a unified global business network, this latest move has brought Unigen one step closer to its goal of becoming a world-class company that develops not only new natural ingredients but also new natural pharmaceuticals. The day's ceremony included the appointment of the new company CEO. Outgoing CEO Dongsik Kim handed over Unigen's reins to the capable hands of Dr. Ed Cannon. In his inaugural speech, Dr. Cannon enjoined everyone present to “move forward, always remembering our mission and passion.” He added that he was “confident of Unigen's future success on the global stage.” Dr. Cannon is an industry veteran with 29 years of experience in the bio business sector. In the past seven years, he has successfully steered two companies as the CEO-cum-director of Adipogenix, Inc. and Elixir Pharmaceuticals.

유니베라 컨벤션

Univera Convention

유니베라 컨벤션은 유니베라의 개인사업자인 유니베라 어소시에이트(Univera Associate)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유니베라 최대의 행사이자 축제이다. 유니베라 컨벤션은 매년 여름에 개최되며 미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어소시에이트(Associate)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다. 유니베라 컨벤션은 유니베라 사업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어소시에이트들을 축하하며, 미국내 유니베라 어소시에이트들의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이제 미국 내에서 유명한 기업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업창립 10주년이 되는 내년 2009년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1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컨벤션이 개최될 예정이다. 유니베라 온 가족의 꿈의 무대- 유니베라 컨벤션. 매년 새로운 놀라움과 성공의 비전을 보여주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다.

Univera convention is the biggest event and festivity that every Univera associates look forward to. Univera convention is an annual event held in summer in which associates operating throughout the US voluntarily participate. The convention is a venue where associates in the US can gather, socialize, celebrate colleagues' achievements, and share Univera's vision. It

has become a well-known corporate event in the US. In 2009, a grand convention is going to be held in Seattle to mark the tenth anniversary of Univera. Univera convention is a dream stage of Univera associates and a moment of celebration which presents vision of surprise and success every year.



청중들을 감동시킨 이병훈 사장
Mr. Lee inspires the audience

컨벤션 개막을 기다리는 유니베라 경영진들 (사업자들)
Univera Associates wait patiently for the doors to open and the Convention 2008 to begin!



워싱턴 주 자택에서 맛있는 식사와 음료를 즐기는 이병훈 사장과 손님들
Mr. Lee and his guests enjoy an evening of fine food, drink and company at his Wash. Home

농장 이사회의 핵심 멤버들과 CEO 리건 마일스(오른쪽에서 세번째)
CEO Regan Miles and the valued members of the Field Leadership Council





알로콥 20주년

알로콥(Aloecorp)가 2008년 4월 4일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행사가 텍사스 라이포드의 힐탑 가든 알로에 농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알로콥 임직원들과 4명의 멕시코 알로콥 대표들이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병훈 유니베라 총괄사장님, 스튜어트 오킬트리, 피터 해이퍼만, 그리고 2명의 현지 최장기 근속 사원 믹 앤더슨과 노마 가자가 명예석에서 특별한 손님들을 환영하고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경주

단.호.한..다.짐.이.었.다

회사가 어려워도 연구개발은 계속한다.
아니, 회사가 어려울수록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회사가 살 길이다!
연호가 이즈음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는
경영 원칙이자 소신이었다.

CAP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회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혹여 빠진 건 없는지, 행여 오랫동안 공들였던 일이 차질을 빚는 건 아닐지 수험생처럼 가슴을 두근거렸던 연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기자들 뿐만 아니라 의약계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행사장 안은 새로운 발표에 대한 뜨거운 취재열기로 한껏 달아올라 있었다. 각 언론사에 미리 보도자료로 보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일 줄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1994년 4월, 남양알로에가 주관하는 CAP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회. 지난해 6월에 결성된 알로에 신약개발 연구진이 그간의 성과를 세상에 내놓는 자리였다.

남양(NY)의 이니셜을 딴 신물질들이 소개

행사장 전면에 기다란 테이블을 앞에 놓고 서울대 이승기 교수, 정명희 교수, 부산대 김규원 교수, 충북대 이종길 교수 등 발표자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이승기 박사가 포문을 열었다. “마침

내 저희 연구진은 알로에 베라에서 간세포와 혈관의 생성, 항염작용을 촉진하는 신물질을 추출하고, 그 각각의 이름을 NY 931, NY 932, NY 933이라 명명했습니다.” 남양(NY)의 이니셜을 딴 신물질들이 소개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첩을 펼쳐든 기자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NY 931은 알로에 베라 젤에서 분리, 정제된 물질로 간세포의 성장촉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저희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승기의 발표를 들으며 연호는 좌중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발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20년 전 연호에게 기적을 안겼던 알로에가 이제는 과학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이었다. “알로에에서 추출된 NY 932는 상처 부위의 세포에 혈관생성을 촉진함으로써 궤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입니다. NY 933은 피부조직의 형성을 촉진하는 성분입니다. 배양된 피부조직에 상처를 유발한 뒤, NY 933을 투여한 결과 현저한 상처치유 효과를

there can be no stopping

Present the interim report for its CAP Project

The room was filled to overflowing. For Yunho, who had anxiously prepared for this long-awaited moment like a student preparing for an important exam, the sight was well-nigh unbelievable. Tightly packed into the event venue were not only reporters and cameramen but also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quarter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air vibrated with a palpable buzz of excitement at the impending announcement. Press releases had been distributed to the relevant media outlets in advance, but Yunho could never have imagined that they would inspire such a fervent response. April 1994. It was time for Namyang Aloe to present the interim report for its CAP Project. The results of many months of hard work by the Aloe New Drug Development Team, formed in June of the previous year, would be unveiled on this day.

Namyang's initials, "NY."

Seated along the lengthy table occupying the

front of the room were Professors Seunggi Lee and Myeonghi Jeo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Gyuwon Kim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Professor Jonggil Lee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hen the bustling of the crowd finally died down, Professor Seunggi Lee opened the proceedings. "Our research team has been able to extract from Aloe Vera new substances that stimulate the growth of liver cells and blood vessels, and boost the body's anti-inflammatory functions. We have named these substances NY 931, NY 932, and NY 933, respectively." The panel thus introduced the various new substances bearing Namyang's initials, "NY." Cameras flashed all around the room and the reporters began to ply their pens busily across their notebooks. "NY 931 is a substance separated and refined from Aloe Vera gel. Our research team confirmed that NY 931 shows remarkable efficacy in boosting the growth of liver cells." As Dr. Seunggi Lee continued with his presentation, Yunho turned his gaze toward the audience. Every

나타낸다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새로운 연구성과들이 속속 이어졌다. 알로에의 면역작용에 대한 효과, 피부염과 피부암 발생에 대한 예방과 치료효과... 알로에의 기적이 하나하나 베일을 벗고 있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자들에게 끌려다니던 연구진들이 돌아오자, 연호가 과학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제 겨우 중간발표회인데, 언론의 관심이 대단하군요. 다음에는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승기 박사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조만간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실용화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모두 이연호 사장님 덕분입니다.” 김규원 교수도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열 달도 안돼 이런 성과가 나오리라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참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대기업하고도 여러 번 공동작업을 해봤지만, 이번처럼 편하게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입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길 교수의 말에 모든 교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연구라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결실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다. 돈을 투자하고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남양 알로에와 알로에의 1989년 이후 알로에연구재단에 총 5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CAP 프로젝트에 만도 7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연구진들을 다그치거나 성과를 재촉하는 일도 없었다. “여기, CAP 프로젝트의 연구진들이 계신 앞에서 확실하게 해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연호가 함께 참석한 회사 임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CAP 프로젝트

“요즘 회사 매출이 전년도만 못합니다. 앞으로 회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할 지도 모리겠습니다...”

기쁨에 들떠 있던 회사 임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승기 박사를 비롯한 CAP 프로젝트 과학자들은 적이 당혹스러웠다.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연구개발비에 예산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연구개발은 계속합니다. 연구는 자전거 페

달과 같은 겁니다. 자전거 페달이라는 건 계속 밟고 있지 않으면 중심을 잃고 넘어져버립니다. 하다가 중단하모 그동안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고, 그러모 그동안 투자한 돈도 다 허공으로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힘들수록 페달을 더 열심히 밟아야 가파른 언덕도 넘지요, 회사 사정이 나빠진다고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회사 간부들에게 못박듯 연호가 말했다.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연구에 계속 거금을 투자하는 데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임직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 걸 알고하는 소리였다. “CAP 프로젝트의 연구자들께서는 앞으로 무신 소릴 듣더라도 중요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구에 임해주십시오. 회사 사정이 악화되더라도 여러분 하시는 연구가 지장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단호한 다짐이었다. 회사가 어려워도 연구개발은 계속한다. 아니, 회사가 어려울수록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회사가 살 길이다! 연호가 이즈음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는 경영 원칙이자 소신이었다. ○

문선유 지음 「땅위에 별을 심은 사람-청강 이연호를 기리며」에서 발췌

Even if the company got into trouble, research would continue. What’s more, the harder things got for the company, the more it would concentrate on research. That was the way to survive in the long run! This was the management principle and personal conviction that Yunho repeated to himself over and over during those challenging days

ear in the room was eagerly straining catch the speaker’s words. The mysterious plant called Aloe, which had bestowed its miracle on Yunho

20 years ago, would now bring hope to a far greater number of people in the name of science. “Also extracted from Aloe, NY 932 stimulates the generation of blood vessels in an injured area, thus exercising extraordinary efficacy in healing ulcers. Similarly, NY 933 accelerates the formation of skin tissue. When we administered NY 933 to a wound induced in cultured tissue, we observed a remarkable increase in healing” The team presented new result after new result: the positive effects of Aloe on the body’s immune functions, preventive and curative properties for skin infections and skin cancer.

The miracle of Aloe was unveiling itself, layer by layer.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 Yunho commended the research team for their efforts when they finally returned from their encounter

with the press. “This is just an interim progress report, yet it has garnered such remarkable interest from the press. We’ll be able to unveil so much more the next time around,” said Dr. Seunggi Lee as he wiped his brow. “We’ll soon be able to obtain an international patent and begin commercialization. All this is thanks to you, Mr. Yunho Lee,” added Dr. Kim, his face flushed with excitement.

“I never thought we’d get so much accomplished in under 10 months. I am so very proud of you all.” “I’ve worked with many companies, even large corporations, in the past, but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free to devote myself entirely to research. Thank you for entrusting us with this work.” Everyone nodded in assent to Dr. Jonggil Lee’s words.

Indeed, research is not an endeavor that produces results in a short span of time, nor is it something that can be done with a small amount of money. Sometimes, a company can invest funds in research without gaining any beneficial return. Nonetheless, Namyang Aloe and Aloecorp had invested more than five million dollars in the Aloe Research Foundation since 1989; over 700,000 dollars had been poured into the CAP Project alone. Even more remarkably, the company had never once pushed the researchers or pestered them for results.

CAP Project

“There’s something I wish to make clear today in the presence of the CAP Project research team,” Yunho said as he glanced around at the Namyang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who had attended the press conference. “Our company sales have fallen off since last year. We might need to take extensive measures to improve our operations.”

At his words, the faces of his employees, which had been aglow with excitement, suddenly

fell. The CAP Project researchers, including Dr. Seunggi Lee, found themselves disconcerted. With revenues falling, it would be difficult to secure a stable source of fund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till, our R&D efforts will continue no matter what! Research is like the pedals of a bicycle. If the pedals aren’t constantly in action, the entire bicycle will lose its balance and topple over. Stopping in our tracks means not only being unable to carry on the results we’ve achieved so far, but also losing all the money that we’ve invested along the way. When the road gets rough, we must pedal that much harder to scale the steep incline before us. There will be no cutting back on R&D investments just because the company is flagging!”

Yunho spoke emphatically, as if to silence any objections the executives might raise against investing huge sums of money in uncertain research. “And to our CAP Project team, I encourage you to dedicate yourselves to research no matter what you might hear. I assure you that nothing will interfere with your work, even if the company’s situation turns even worse.”

His resolution was firm. Even if the company got into trouble, research would continue. What’s more, the harder things got for the company, the more it would concentrate on research. That was the way to survive in the long run! This was the management principle and personal conviction that Yunho repeated to himself over and over during those challenging days. ○

Excerpted from Seonyu Mun’s 「The Man Who Planted Stars on Earth-In Memory of Yunho Lee」

중국의 대나무 문화

글 | 맨디 리 | 영업 코디네이터 | 알로corp 중국

중국인들은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를 일컬어 ‘사군자(四君子)’라고 한다. 얼룩 대나무는 ‘황제의 후궁’들의 대나무이다. 이 말은 중국 남쪽 대륙으로 무리한 원정 감사를 감행하다 과로사로 숨진 순(舜) 황제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그는 지금의 후난 지방의 묘소에 안치되었고, 그의 아내인 이황과 누잉이 상강(湘江) 옆에서 애도하는 동안 떨어 눈물이 강둑에서 자라던 대나무를 얼룩지게 했다 하여 유래된 말이다.

Chinese bamboo culture

By **Mandy Li** | Sales Coordinator | Aloecorp China

Chinese people designate the plum, orchid, bamboo and chrysanthemum as ‘four gentlemen’. The mottled bamboo is the ‘bamboo of imperial concubines.’ This epithet has its origins in a story about Emperor Shun, who died of overwork during an inspection tour of the south.



천 이페이 대나무 피리를 부는 여인
Chen Yifei features, a woman playing bamboo flute

대나무는 팬더곰의 주식(主食)이자 중국역사의 문화적 상징이다. 고대 중국사회에서 대나무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의식주를 포함 교통수단에까지 이용되기도 했다. 중국 최초의 서적은 대나무 껍질을 엮어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고대 악기 역시 대나무로 만들어졌다. 또한 대나무는 충(忠)과 효(孝)로 대표되는 봉건적 윤리 속에서 많은 역할을 맡기도 했다.

중국의 선조들은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를 일컬어 ‘사군자’(四君子)라고 하였으며,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는 세한삼우(歲寒三友)라 하였다. 유명한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대나무의 장점을 그 성질에 따라 요약했는데, 깊은 뿌리는 단호함을, 곧고 높은 줄기는 정직함을, 비어있는 줄기 속은 겸손함을,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곧은 외관은 정조와 순결함으로 표현했다. 그가 결론짓기를,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선과 덕을 상징하는 것 이외에도, 대나무는 영혼과 감정을 지녔다고 믿어졌다. 중국인들은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를 일컬어 ‘사군자’(四君子)라고 한다. 얼룩 대나무는 ‘황제의 후궁’들의 대나무이다. 이 말은 중국 남쪽 대륙으로 무리한 원정 감사를 감행하다 과로

사로 숨진 순(舜) 황제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그는 지금의 후난 지방의 묘소에 안치되었고, 그의 아내인 이황과 누이가 상강(湘江) 옆에서 애도하는 동안 떨군 눈물이 강둑에서 자라던 대나무를 얼룩지게 했다 하여 유래된 말이다. 어느 당나라 시인은 “대나무 위의 눈물 자욱이 후궁들의 비통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기록했다.

또 다른 종의 대나무인 ‘모소’는 한 효성 깊은 소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모소는 중국 삼국시대(220~280)의 한 학생이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또한 당시 전통의학으로는 치료될 수 없었던 불치병을 앓게 되었다. 담당 의사는 죽순(竹筍)으로 만든 죽이 도움이 될 지 모른다 했지만, 엄동설한에 죽순을 찾기로 불가능했다. 절망한 모소는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그의 효성은 하늘을 감동시켰고, 이내 몇 개의 죽순이 땅속에서 돌아났다. 죽순으로 끓인 죽은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했고, 모소의 효성에 얹힌 이야기는 중국대륙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고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대나무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대나무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과 그림들이 오랜 역사에 걸쳐 쏟아져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 역사 속의 많은 화가들 중, 청나라의 정판교(鄭板橋, 1693~1765)

는 대나무 그림으로 가장 뛰어난 화가였다. 십대 시절에 그는 하얀 종이를 창문격자에 올려놓고 종이에 비치는 대나무 그림자를 관찰했다. 그의 그림은 대나무의 생명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백의 미와 조연함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강건하고 당당한 기백의 대나무 그림을 선보였다. 그가 그린 한 작품에는 이러한 말이 쓰여 있다. ‘대나무는 산에 충직하고, 깎아지른 절벽에 뿌리를 내리며, 재해로부터 더욱 강해지고, 사방에서 밀어치는 강풍에도 잘 견뎌낸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요즘, 대나무 보호기구 및 기관들은 대나무 숲지대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는 팬더곰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가치의 복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참고.

다른 식물들과 달리 대나무 꽃은 60~80년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꽃을 피우지만, 이 또한 곧 시들고 만다. 뿌려진 대나무 씨가 완전히 자라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30년. 지난 300만년 동안, 대나무는 5만회 이상의 꽃을 피웠다. 팬더곰은 주기적으로 이주를 하며 살아가지만, 대나무 숲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이 또한 불가능해졌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나무 꽃이 피는 동안 250마리의 팬더곰이 운명을 달리했다.

The bamboo plant is the staple food of the giant panda and a cultural icon in Chinese history. In ancient China, bamboo was a feature of various aspects of daily life. It was used for food, clothing, housing and transportation. China's first books were crafted from bamboo strips strung on string, and almost all ancient musical instruments were made of bamboo. Bamboo also had assigned roles within feudal ethics.

Chinese ancients designated the plum, orchid, bamboo and chrysanthemum as "four gentlemen," and pine, bamboo and plum as the "three friends in winter." Renowned Tang poet Bai Juyi (772-846) summed up the merits of bamboo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its deep root denotes resoluteness, its tall, straight stem represents honorability, its hollow interior modesty and its clean and spartan exterior exemplifies chastity. He thus concluded that bamboo lives up to the title "gentleman."

Besides being a symbol of virtue, bamboo was believed to be endowed with soul and emotion. Chinese people designate the plum, orchid, bamboo and chrysanthemum as "four gentlemen". The mottled bamboo is the "bamboo of imperial concubines." This epithet has its origins in a story about Emperor Shun, who died of over-

work during an inspection tour of the south. He was buried in what is now Hunan Province, and as his wives Ehuang and Nuying mourned him by the Xiangjiang River, their tears fell on and stained bamboo growing on its bank. A Tang poet wrote: "The trace of tears on bamboo gives expression to bitter yearning."

Another breed of bamboo, Mengzong, honors a dutiful son. Meng Zong was a student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D 220-280). His father died when he was an infant, and his mother was later stricken with a serious illness that did not respond to conventional medicine. The doctor suggested that soup made from bamboo shoots might help, but they were impossible to find in winter. Desperation and grief reduced Meng to tears. His sincerity moved the heavens, and several bamboo shoots broke through the soil. After taking the soup his mother recovered, and word of Meng's filial piety soon became known across the state.

Ancient Chinese literati held bamboo in profound esteem. This explains why there are so many writings and paintings dedicated to it throughout history.Of all the painters in history, Zheng Banqiao (AD1693-1765) of the Qing Dynasty is believed to have been the best at draw-

ing bamboo. As a teenager, he put white paper on a lattice window, and observed the shadows of bamboo. His paintings focused on the vitality of the plant, portraying it as spare and aloof yet sturdy and proud. An inscription on one of his bamboo paintings reads: "Firmly cleave to the mountain, take root in a fractured bluff; grow stronger after tribulations, and withstand gales from all directions."

Today as people become more aware of the interaction between mankind and nature, the establishment of bamboo preserves should bring growing areas of bamboo forest. This will be of great benefit to the giant panda, and can also be viewed as a resto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values. ☉

TIPS. In sharp contrast to other plants, the bamboo only blossoms every 60 to 80 years, and perishes soon after. It takes one to three decades for its seeds to grow. In the past 3 million years, bamboos have undergone more than 50,000 extensive blooms. Pandas survived by migrating, but this is no longer an option owing to the sharp decrease of bamboo forests. The last two bloomings of bamboo caused 250 giant pandas to starve to death.

성장통

에릭 밀러 | 유니베라 미국

씨앗은 심어져 피어날 준비가 되었지만
 곧 또다른 씨앗들이 주변에 자릴 잡아
 비좁은 땅 헤쳐 안간힘 다해 싹틔우려 해도
 도저히 튼튼한 새싹으로 자라날 수 없었네.
 비가 내리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주변의 장미들은 그를 제치고 높이높게 뻗어나갔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꽃 한송이가 꺾여나가자
 드디어 뿌리를 뺄을 자리가 생긴 여린 장미
 하루가 다르게 높이높이 커나가기 시작했네.
 돌아보니 주변의 꽃들은 하나 둘씩 스러져가고
 그 역시 해충들의 꼬임, 날씨의 압박에 시달렸네.
 홍수가 땅을 쓸고 눈마저 시시각각 쌓여와
 그의 기개는 흐트러지고 잎새는 힘없이 처져갔네.
 희망에 찼던 표정도 변해가기 시작했네.
 힘겨운 나날들을 견디지 못한 동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지고 말았네.
 세월이 지쳐버린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네.
 자랄 수 없어 뿌리만 내려가던 시간들이 그를 튼실히 해준 것을.
 폭풍우가 몰아치고 해충이 몰려오던 때마저
 그는 자기도 모르는 새 굳세어져가고 있었음을.
 그러니 역경이 닥쳐오고 시련이 그림자를 드리우면
 뿌리를 깊게 뺄으세, 폭풍 뒤엔 언제나 맑은 날이 찾아온다네.

The seed was planted and ready to bloom
 But the planter planted soon and gave him no room
 With all his might and will, he tried to push out
 But as hard as he tried, he couldn't grow stout
 It started to rain, the sun began to shine so bright
 All the roses around him grew tall and out of his sight
 Until one day when a fellow flower was picked
 And he had room for his roots to finally shift
 He began to grow, taller and taller each day
 And watched as those around him started drifting away
 The pests began to peck him, weather started to stress him
 Floods began to flow, snow was rising by the second
 His attitude faced degression, leaves lowered in depression
 His optimistic expressions turned in a different direction
 All of his peers would soon disappear
 They couldn't make it through the troublesome years
 He was weary of the times and never stopped to realize
 That setting his roots before growing had lengthened his life
 When the storms came rolling and the pests came strolling
 He was only getting stronger without his own knowing
 So when trials hit you hard and tribulations are near
 Extend your roots deep because after every storm the weather
 will clear

Growing Pains

By **Eric Miller** | Univera USA

소원을 들어 드립니다



에코넷 한국 홀딩스

- 러시아 농장에 비데있는 화장실!
- 마음있는 기업본부 분들과 함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간을 정례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 행복하고 건강한 ECONET, ECONETian, ECONET WAY

ECONET Korea Holdings

- I hope they would install a bathroom with a bidet at the Russian farm.
- I wish that I could do volunteer work regularly with my colleagues
- I wish for a happy and wholesome ECONET, ECONETian and ECONET WAY.

유니젠 한국

- 2008년 대박 났으면 좋겠다!!
- 실력을 갖춘 전문가 되기, 좋은 아빠, 남편 되기.
- 3달째 감가... 해방되고 싶다.
- 아~ 가족여행 가고 싶다.
- 아버지, 어머니 언제나 건강하시길~!

Unigen Korea

- Hope 2008 turns out to be a spectacular!
- I wish to become a competent professional in my field, and become a better father, husband.
- It's been three months since I caught the cold. I wish to be cold-free.
- I wish I could go on a family trip.
- I wish for my parents to be always healthy.

유니베라 미국

- 작년에 켄 살을 모두 뺄 때까지 일주일에 3번 개인 트레이닝을 받았으면 좋겠다
- 내 소원이 있다면 너무 비싸서 내가 사주지 못하는 닌텐도 Wii를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다.

Univera USA

- I want to get a personal trainer 3 times a week until I lose all the weight that I have gained this past year.
- If I had one wish it would be to get my children a Wii that I'm unable to afford

에코넷 미국 홀딩스

- 우리 가족을 모두 태울 수 있도록 좌석이 3열 있는 Suzuki XL7이 있었으면 좋겠다.

ECONET USA Holdings

- My wish is for a car that will fit my family, Suzuki XL7 with 3rd row seating.

알로کم 중국

- 어머니 생신 때 드릴 수 있게 스킨케어 한 세트를 받았으면 좋겠다.
-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고혈압 개선 제품이 있어서 장모님께 내 가족을 보살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얼굴에 있는 이 많은 주근깨를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본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번 준공식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뤄졌으면 좋겠다.

Aloecorp China

- I wish I could have one set of skincare for my mother as her birthday's gift.
- I wish I could have our own product of reducing blood pressure and send to my mother-in-law, thanks for her hard taking care of my family.
- Because there are so many freckles on my face, I wish I could remove them.
- I wish we could have more technology support from the headquarters.
- I wish the opening ceremony would be greatly successful.

네이처텍

- 네이처텍 잘되서 직원 200% 상여왔으면 좋겠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와이프 살빠지게 해주세요.
- 와이프에게 결혼전에 못한 멋진 프로포즈 하기.
- 회사 매출액 2배로 성과급 짱짱 많이 받고 돈생기면 둘째 낳기.
- 사내에 풋살 경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 아들 생식, 가족 건강.
- 타정실 올해 불량 없이 잘 되는것.
- 우주여행, 서울구경.

Nature Tec

- NatureTech's success, leading to a 200% bonus for the employees.
-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 I wish that my wife would lose weight.
- Propose to my wife in a wonderful way which I couldn't do in the past when I married her .
- 200% increase in sales and get a huge bonus and when I have enough money, have a second child.
- I wish there was an indoor soccerfield at Nature Tech.
- I wish for a son.
- I wish for my family's health
- No inferior goods in the the tablet production room this year.
- A trip to outer space or go sightseeing to Seoul.





나를 찾아 떠난 여행

글 | 황현욱 | 부산경남팀 | 유니베라 한국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서 유니베라 사람에 빠진 황현욱씨
Hyunuk Hwang demonstrates his passion for Univera in front of Sagrada Familia, Barcelona.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뭉헨의 시원한 맥주, 가우디의 혼이 담긴 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미켈란젤로라는 예술가에 푹 빠져들게 만든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벽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동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A Journey of Self-Discovery

By **Hyunuk, Hwang** | Sales(Bukyung) Team | Univera Korea

“That ice-cold beer in Munich, just one draft of which was enough to wash away the day’s weariness; the Sagrada Familia, which bears the imprint of master architect Antoni Gaudi’s inimitable soul; and the ceiling of the Sistine Chapel, whose beauty inspired me with a passion for the works of Michelangel...”

Everyone dreams of going to Europe at least once in their lives. I’ve been fortunate enough to make the trip not just once but twice. Traveling is always fun and I’ve done my fair share of it over the years, but my second tour of Europe turned out to be a particularly memorable experience for me. That ice-cold beer in Munich, just one draft of which was enough to wash away the day’s weariness; the Sagrada Familia, which bears the imprint of master architect Antoni Gaudi’s inimitable soul; and the ceiling of the Sistine Chapel, whose beauty inspired me with a passion for the works of Michelangel... These are just a few of the countless moments that left a vivid and lasting impression on my mind.

In Rome, I tossed a coin into the bubbling waters of the Trevi Fountain and wished that I would one day return to that spot. I will always be waiting for that wish to come true.

Munich: The Heart of Bavaria, Beer, and BMW

Munich is the capital of Bavaria, or Bayern, in southeastern Germany. To Koreans, it’s better known as the home of FC Bayern Munich. The recent increase in nonstop flights from Korea has made it popular among Korean tourists as well. A web-like network of railroads and airline routes now connect Munich with the rest of Europe, making it a hub of sorts for people planning to make

모두들 한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유럽! 꿈에 그리던 유럽여행이 한번도 아닌 두 번이나 나에게 올 줄이야. 여행은 항상 즐겁다. 그 동안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이번 여행만큼 기억에 남는 여행도 없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뮌헨의 시원한 맥주, 가우디의 혼이 담긴 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미켈란젤로라는 예술가에 폭 빠져들게 만든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벽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동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프레비 분수에서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던진 동전의 바람이 언젠가 다시 이뤄지길 바라며 나는 항상 꿈꾼다.

맥주와 BMW로 대표되는 바이에른의 심장 뮌헨

독일 남부지방 바이에른 주도 뮌헨. 우리에게 익숙한 바이에른 뮌헨 축구팀으로 알려진 도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직항편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특히 뮌헨은 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비행기 노선과 열차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뮌헨은 다른 도시를 여행하는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뮌헨에서 나에게 가장 남는 기억은 시원한 맥주 한잔이다. 떠들썩한 호프 브로이 하우스에서 수많은 서양인들과 섞여 마셨던 시원한 맥주는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를 사로 잡았던 것 같다.

자동차 마니아라면 꼭 가보아야 할 BMW의 본사와 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을 닮은 도시 바르셀로나

나는 부산사람이다.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다다. 야구를 좋아하는 활기찬 도시, 부산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을 받기 위한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지중해와 맞닿은 까탈루냐 지방의 수도다. 스페인이 낳은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영혼이 숨쉬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활기 넘치는 람블라스 거리,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몬주의 언덕 등 여러 모로 부산처럼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가우디가 젊음을 바친 사그



150년에 걸쳐 완성한 로마의 콜로세움 전경.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 정식명칭인 콜로세움은 로마 제정기에는 검투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Colosseum in Rome, Italy, originally the Flavian Amphitheatre, was used for gladiatorial contests during the Roman Empire. It took 150 years to build the Colosseum.



디즈니랜드의 모델이 된 독일 뤼첸의 노이반슈타인성 Neuschwanstein Castle in Füssen, Germany was the inspiration for Sleeping Beauty Castle at Disneyland Park.

라다 패밀리이다. 네 개의 뾰족한 첨탑과 성정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각으로 표현한 외관, 게다가 1882년에 건축을 시작해 언제 공사가 끝날지 모르는 신기한, 가우디라는 한 사람의 영혼이 전세계 사람을여기로 불러 모으는 것에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국의 신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이다. 이곳 저곳을 둘러보아도 온 도시가 유적들로 가득하다. 도시 기능이 유적으로 인해 발달하지 못할 정도였다.

로마시대의 검투장으로 사용되던 콜로세움, 로마의 휴일 여주인공 오드리 햅번의 상큼함이 살아 숨쉬고 있는 스페인광장, 로마에 다시 오기를 바라는 소원을 비는 트레비 분수 등 수많은 명소들이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로마 속의 작은 나라 바티칸이란 곳이 나를 감동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천주교의 성지, 교황이 사는 곳 불과 0.44 제곱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 안에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인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명을 받은 곳은 미켈란젤로의 천장벽화가 그려져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이었다.

가로 40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에, 인간이 그렸다고 볼 수 없는 천장벽화는 모든 사람을 발길을 잡았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이었다.

미켈란젤로는 5년 동안 떨어지는 물감을 맞아가면서 허리를 굽히고 그 위대한 역작을 만들었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시련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그 천장벽화를 생각하며 속으로 말할 것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며, 나는 해낼 것이다”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이다.

이곳 저곳을 둘러보아도 온 도시가 유적들로 가득하다.

도시 기능이 유적으로 인해 발달하지 못할 정도였다.

“All roads lead to Rome,” a city whose every nook and cranny is a cultural heritage. Everywhere you turn, there is a historical landmark, relic, or artwork; the city’s cultural saturation is such that it even impeded the development of its urban functions.

their rounds of the various European countries.

My most unforgettable memory of Munich is the cold glass of beer I enjoyed at Hofbrauhaus among a boisterous crowd of Westerners. Drinking down that refreshing draft while taking in the bustling bar’s atmosphere of camaraderie- feeling that I might befriend any one from any country in Europe and beyond- was a literally intoxicating experience. Also memorable for me was my visit to the BMW headquarters and the company museum-a must-see for anyone with a passion for cars.

Barcelona: A City that Recalls Busan

I’m from Busan. And for me, the word Busan conjures up images of the sea. The numerous tourists who flock to Busan come first and foremost for the open and invigorating feeling only the sea can give. Barcelona is the capital of Catalonia, a Spanish region abutting the Mediterranean Sea.

It is also the city where the spirit of Spain’s celebrated architect, Antoni Gaudi, still lives and breathes. The sights and sounds of Barcelona-including the energy and vitality of La Rambla and the vista of the Mediterranean commanded from Montjuic-had a charm reminiscent of my hometown.

The most memorable among them was the Sagrada Familia, the cathedral to which Gaudi devoted his youth. Its four soaring spires, the intricate Biblical carvings adorning its exterior, and the wonder of seeing a building begun in 1882 and still undergoing construction...

I could not help bowing my head in awe of Gaudi’s spiritual legacy and its ability to draw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o Barcelona.

Rome: The Legend of an Empire

“All roads lead to Rome,” a city whose every nook and cranny is a cultural heritage. Everywhere you turn, there is a historical landmark, relic, or artwork; the city’s cultural saturation is such that it even impeded the development of its urban functions. The Coliseum, where Roman gladiators engaged fight life-and-death battles; Piazza di Spagna, against the backdrop of which the world fell in love with Audrey Hepburn; and the Trevi Fountain, where I wished for another chance to return to Rome, are just a few of the countless attractions that bring tourists to this monumental city. Ironically, however, what really swept me off my feet was a small country within Rome: the Vatican. The Holy Land of the Catholic Church and home to the Pope himself, the Vatican holds the immortal works of all three masters of the Renaissance-Raphael, Leonardo da Vinci, and Michelangelo-in an area of just 0.44 square kilometers.

The most moving place among the Vatican’s sights was the Sistine Chapel, which houses the famous ceiling painted by Michelangelo. The ceiling fresco, covering a space of 40m by 14m, defies the limits of human creativity and artistry. It is truly an inspiration not just for me but also for the numerous visitors who find themselves riveted by its grandeur. It reminds us all what greatness human beings are capable of. It took Michelangelo five years to complete his masterpiece-five long years of working in an excruciating physical position with paint dripping in his eyes. We all encounter trials and obstacles in our lives. But whenever I am faced with a difficulty of my own, I will remember Michelangelo’s ceiling and remind myself: “I, like Michelangelo, am a human being capable of great things. And I will overcome.” ☺



Before



After

퀴즈 퀴즈

달라진 곳을 찾아주세요. After 사진에는 달라진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찾으신 분은 After사진을 복사하신 후 복사한 사진 위에 달라진 5곳을 표시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fter 사진을 Scan하여 전자문서상에서 표시한 후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실 곳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2-4 에코넷센터 3층 에코넷 기업본부 사보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kaoh@univera.com입니다.

Quiz Quiz

What's different? Look closely and you will find 5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ictures. Those who have found the hidden spots please send us via mail a copy of the "After" picture and circle the 5 places on the copy. (Either that or you can scan the picture with the 5 spots marked and e-mail it to: kaoh@univera.com)

The address you should post it to is : ECONET Way Editorial Room ECONET Center 3rd fl.,302-4 Sungsu-dong 2-ga,Sungdong-gu Seoul, South Korea

에코넷 가족

ECONET Family

네이처텍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우:365-850

Naturetech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 Namyangglobal.com

에코넷 한국 홀딩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 133-120

ECONET Korea Holdings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Tel: (02)460-8865, Fax:(02)467-9988

유니베라 한국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 133-120

Univera Korea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Tel: (02)460-3100, Fax:(02)463-9162

유니젠(미국)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우: 330-863

Unigen (Korea)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041)529-1510, Fax : (041)529-1599

유니젠(한국) Unigen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shington 98516

www.unigenpharma.com

Tel: (360) 486-8200, Fax: (360) 413-9135

에코넷 미국 홀딩스 ECONET USA Holding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shington 98516

Tel: (360) 486-8300

Fax: (360) 413-9185

유니베라 미국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shington 98516

www.universalifesciences.com

Tel: (360) 486-7500

Fax: (360) 413-9150

알로콧 미국(생산) Aloecorp USA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www.aloecorp.com

Tel: (956)262-2176

Fax : 956-262-8113

알로콧 미국(영업) Aloecorp USA

248 Addie Roy Rd.

Suite B-103, Austin,

Texas 78746

www.aloecorp.com

알로콧 중국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898)-6674-5400

Fax: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Unigen Russia

103-A 4th Floor, Okeansky Prosect,

Vladivostok, Russia, 690002

Tel: 4232-42-20-95

Fax : 7-4232-42-13-36

